

KOREAN FOLK TALES



TALK TO ME IN KOREAN

접어지는 샘물	3
해님 달님	16
흑부리 영감	32
금도끼 은도끼	48
말 안 듣는 청개구리	64
선녀와 나무꾼	79
요술 맷돌	97
흥부와 놀부	110
빨간 부채 파란 부채	134
의좋은 형제	154
콩쥐 팥쥐	169
호랑이와 꾀감	189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205
소가 된 게으름뱅이	221
은혜 깊은 까치	237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고 가난했어요. 하지만 아픈 동물들을 잘 보살피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주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 새는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 주었던 새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새를 따라 깊은 산 속까지 들어갔어요. 그 곳에서 할아버지는 샘을 발견했어요.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그 샘에서 물을 한 번 떠 마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모습이 신훈 시절의 젊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놀란 할아버지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으로 다시 갔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샘물을 한 번 들이켰어요. 그러자 할머니도 신훈 시절 새댁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신훈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 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노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와 다시 젊어진 방법을 물어보았어요.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노인에게 신비한 샘물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욕심쟁이 노인은 당장 그 샘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노인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 아기가 되어 버렸어요.

샘을 찾으러 간 욕심쟁이 노인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노인을 찾아 그 샘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옷 안에 싸여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착하다 to be kind, to be kind-hearted

할아버지 grandfather, old man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고 가난했어요.



자식 children

가난하다 to be poor

하지만 아픈 동물들을 잘 보살피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프다 to be sick

동물 animal

보살피다 to take care of, to look after

즐겁다 to be fun/enjoyable

보내다 to spend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주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평소 usual

산 mountain

나무를 하다 to cut wood

새 bird

날아오다 to come flying

그 새는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 주었던 새였어요.



부러지다 to get broken

다리 leg

치료하다 to cure, to give treatment

할아버지는 그 새를 따라 깊은 산 속까지 들어갔어요.



깊다 to be deep

들어가다 to go in

그 곳에서 할아버지는 샘을 발견했어요.



샘 spring

발견하다 to discover, to find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그 샘에서 물을 한 번 떠 마셨어요.



목이 마르다 to be thirsty

떠 마시다 to scoop and drink

그러자 할아버지의 모습이 신혼 시절의 젊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신혼 newlywed

젊다 to be young

모습 appearance, looks, figure

바뀌다 to be changed

놀란 할아버지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놀라다 to be surprised

급히 in a hurry

돌아가다 to go back

사정 story, reason

얘기하다 to tell, to talk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으로 다시 갔어요.



데리고 가다 to take someone to somewhere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샘물을 한 번 들이켰어요.



들이키다 to drink

그러자 할머니도 신혼 시절 새댁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새댁 new bride

신혼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다 to be happy

그런데 어느 날, 옆 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욕심쟁이 greedy person

노인 old person

소식 news

노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와 다시 젊어진 방법을 물어보았어요.



젊어지다 to become younger

방법 method
물어보다 to ask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노인에게 신비한 샘물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신비하다 to be mysterious
얘기해 주다 to tell

욕심쟁이 노인은 당장 그 샘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어요.



당장 right away
달려가다 to run

그런데 욕심이 많은 노인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 아기가 되어 버렸어요.



아기 baby

샘을 찾으러 간 욕심쟁이 노인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노인을 찾아 그 샘으로 갔어요.



찾다 to search, to look for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옷 안에 싸여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겼했어요.



크다 to be big

옷 clothes

싸이다 to be wrapped up, to be bundled up

울다 to cry

아기 baby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데려오다 to bring

키우다 to raise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젊어지는 샘물

Spring that makes you young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a kind-hearted old man and old woman lived in a village.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고 가난했어요.

The old man and old woman were poor and had no children.

하지만 아픈 동물들을 잘 보살피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But, they were spending days joyfully taking good care of sick animals.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주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One day, the old man went to a mountain to cut wood as usual, and a bird flew to him.

그 새는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 주었던 새였어요.

The bird was the one whose broken leg he had healed a few days ago.

할아버지는 그 새를 따라 깊은 산 속까지 들어갔어요.

The old man walked deep into the forest following the bird.

그 곳에서 할아버지는 샘을 발견했어요.

The old man found a spring there.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그 샘에서 물을 한 번 떠 마셨어요.

He was thirsty so he drank the spring water once.

그러자 할아버지의 모습이 신혼 시절의 젊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Thereupon, his appearance became as young as when he was just married.

놀란 할아버지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He was surprised and went back home hurriedly, and told his wife about what had happened to him.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으로 다시 갔어요.

He went to the spring again with his wife.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샘물을 한 번 들이켰어요.

She also drank the spring water once just like her husband.

그러자 할머니도 신혼 시절 새댁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Then, she also changed into how she looked when she was just married.

신혼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The old man and the old woman who ended up appearing just like they used to when they just got married were living happily.

그런데 어느 날, 옆 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However, one day, a greedy old man living next door happened to hear their story.

노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와 다시 젊어진 방법을 물어보았어요.

He came over to the old man and the old woman, and asked how they became younger again.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노인에게 신비한 샘물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The old man and the old woman were kind enough to let him know about the mysterious spring water.

욕심쟁이 노인은 당장 그 샘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어요.

The greedy old man ran over to the spring right away, and drank water.

그런데 욕심이 많은 노인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 아기가 되어 버렸어요.

However, the greedy old man drank so much water that he ended up becoming a baby.

샘을 찾으러 간 욕심쟁이 노인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노인을 찾아 그 샘으로 갔어요.

Since the greedy old man who left to find the spring didn't come back until late at night, the old man and the old lady went to the spring to find him.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옷 안에 싸여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They found a baby crying wrapped in big clothes there.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They didn't have a child, so they brought the baby home, and raised him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GRAMMAR POINT

Verb stem + -ㄴ/은

= Changing descriptive verbs into their adjective form to modify a noun

Verb stems ending with a vowel are followed by -ㄴ.

Verb stems ending with a consonant are followed by -은.

착하다 + 할아버지 → (착한) 할아버지

to be nice/kind old man/grandfather kind old man

아프다 + 동물 => () 동물

to be sick animal sick animal

젊다 + 모습 => () 모습

to be young appearance young appearance

PRESENT TENSE PRACTICE

Ex) 착하다 to be kind-hearted (Infinitive form)

☞ 착해요 (Present tense)

1. 가난하다 to be poor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2. 젊어지다 to become younger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3. 날아오다 to fly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4. 살다 to live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착하다	a. to be surprised
치료하다	b. to raise
발견하다	c. to be pleased
즐겁다	d. to be happy
놀라다	e. to be nice/kind
행복하다	f. to cure
키우다	g. to discover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old man and his wife cured a deer's wounded leg. (T / F)
2. The old man became younger after drinking the spring water. (T / F)
3. The greedy old man found a baby near the spring.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old man and his wife already had a child.
2. The old man followed a bird in the mountain.

3. The old man wanted to become younger.
4. The greedy old man drank water a lot because he wanted to become a baby.

ANSWER KEY

Grammar point

(아픈) 동물

(젊은) 모습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1. 가난해요 | 2. 젊어져요 |
| 3. 날아와요 | 4. 살아요 |

Vocabulary quiz

e, f, g, c, a, d, b

True or False

1. F
2. T
3.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2)

해님 달님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옆 마을에 떡을 팔러 갔다가 다 팔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랗고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떡을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도 잡아먹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오누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집 앞에 도착해서 외쳤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오누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그렇단다.”

“그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문 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의 하얗고 고운 손 대신 거친 털이 나 있는 호랑이의 손이었어요. 놀란 오누이는 뒷문을 통해 부리나케 도망쳐 나왔어요.

오누이는 뒤뜰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오누이를 쫓아 나무 위로 올라 오려고 애를 썼어요. 호랑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와 오누이가 있는 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오빠는 다급한 마음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 주세요.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번쩍’ 하고 빛이 비추더니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호랑이도 하늘에 빌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저도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그때,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냉큼 동아줄을 잡아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매달려 있던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 있었어요. 새 동아줄을 타고 무사히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되었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산골 마을 village by the mountains

오누이 brother and sister

어머니 mother

하루는 어머니가 옆 마을에 떡을 팔러 갔다가 다 팔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옆 next

떡 rice cake

팔다 to sell

돌아오다 to come back

그때, 커다랗고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커다랗다 to be big

무서운 호랑이 scary tiger

앞에 in front of

나타나다 to appear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주다 to give

잡아먹다 to capture and eat

어머니가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얼른 quickly, in a hurry

꺼내다 to take out

그러자 호랑이는 떡을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도 잡아먹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옷 clothes

집 house

오누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 to wait

호랑이가 집 앞에 도착해서 외쳤어요.



도착하다 to arrive

외치다 to shout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다오.”



문을 열다 to open the door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오누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목소리 voice

이상하다 to be strange

눈치 채다 to realize, to become aware of, to take a hint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그렇단다.”



일을 하다 to work

목소리가 쉬다 one's voice gets hoarse

“그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다 to reach out one's hand

호랑이가 문 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문 틈 gap of the door

어머니의 하얗고 고운 손 대신 거친 털이 나 있는 호랑이의 손이었어요.



하얗다 to be white

곱다 to be soft, to be fine

거칠다 to be rough

털 fur

놀란 오누이는 뒷문을 통해 부리나케 도망쳐 나왔어요.



놀라다 to be surprised

뒷문 back door

부리나케 hurriedly, hastily, in a hurry

도망치다 to run away

나오다 to come out

오누이는 뒤뜰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뒤뜰 backyard

나무 tree

올라가다 to go up

호랑이도 오누이를 쫓아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애를 썼어요.



쫓다 to chase

애를 쓰다 to try hard

호랑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와 오누이가 있는 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무를 타다 to climb a tree

가까워지다 to get closer

오누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다 to be scared

오빠는 다급한 마음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급하다 to be urgent

눈을 꼭 감다 to close one's eyes tight

기도하다 to pray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 주세요.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살려 주다 to spare one's life

동아줄 rope

내려 주다 to send something down for someone

그러자 하늘에서 ‘번쩍’ 하고 빛이 비추더니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빛이 비추다 a light is shed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호랑이도 하늘에 빌기 시작했어요.



빌다 to pray, to ask for

“하느님, 저도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그때,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냉큼 동아줄을 잡아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잡다 to hold (something in one's hand), to grasp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매달려 있던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매달리다 to hang, to dangle

끊어지다 to snap, to cut

호랑이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바닥 floor

떨어지다 to fall down, to drop

죽다 to die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다 to rot, to decay

새 동아줄을 타고 무사히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되었답니다.



무사히 safely

달 moon

동생 younger sibling

해 sun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해님 달님

The Sun and the Moon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a mother and her son and daughter lived in a village by the mountains.

하루는 어머니가 옆 마을에 떡을 팔러 갔다가 다 팔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One day, the mother went to the neighboring village to sell rice cakes and was on her way back, without having been able to sell all the rice cakes.

그때, 커다랗고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And then, a big scary tiger appeared in front of the mother.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Grrrrr! Give me one of your rice cakes and I will not eat you.”

어머니가 얼른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The mother quickly took out some rice cake and gave it to the tiger.

그러자 호랑이는 떡을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어요.

Then the tiger ate all of the rice cake and also ate the mother on the spot.

호랑이는 오누이도 잡아먹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Wearing the mother's clothes, the tiger went to the house where the brother and sister lived in order to eat them up.

오누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The brother and sister were just waiting for their mother to come home.

호랑이가 집 앞에 도착해서 외쳤어요.

The tiger arrived at the house and shouted.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다오.”

“Guys, I'm home. Please open the door.”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오누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But, the brother and sister, who realized that their mother's voice was strange, did not open the door.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That is not our mother's voice.”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그럴단다.”

“That's because I worked a lot and have a hoarse throat.”

“그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Then, show us your hands.”

호랑이가 문 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The tiger put his hand in through the gap of the door.

어머니의 하얗고 고운 손 대신 거친 털이 나 있는 호랑이의 손이었어요.

It was a hand of a tiger, with rough fur, instead of their mother's white and soft hand.

놀란 오누이는 뒷문을 통해 부리나케 도망쳐 나왔어요.

The brothers and sister, who were surprised, ran away in a hurry through the back door.

오누이는 뒤뜰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They climbed up a big tree in the backyard.

호랑이도 오누이를 쫓아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애를 썼어요.

The tiger tried hard to follow them and climb up the tree too.

호랑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와 오누이가 있는 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The tiger was climbing up the tree and was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where they were.

오누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The brother and sister were very scared.

오빠는 다급한 마음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Feeling desperate, the brother closed his eyes tight and started praying.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 주세요.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God, please save us. Please send down a rope for us.”

그러자 하늘에서 ‘번쩍’ 하고 빛이 비추더니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And then, a light flashed in the sky and a new rope came down.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The brother and sister went up to the sky on the rope.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호랑이도 하늘에 빌기 시작했어요.

The tiger, who was looking at that, also started to pray to the sky.

“하느님, 저도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

“God, please send down a rope for me, too.”

그때,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Just then, a rope started coming down for the tiger, too.

호랑이는 냉큼 동아줄을 잡아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The tiger immediately grabbed the rope and went up to the sky.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매달려 있던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But then, the rope that the tiger was hanging on was cut abruptly.

호랑이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The tiger fell down to the floor just like that and died.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The rope that had come down for the tiger was actually a rotten rope.

새 동아줄을 타고 무사히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되었답니다.

The brother and sister went up to the sky safely on the new rope, and the brother became the moon and the sister became the sun.

GRAMMAR POINT

Verb stem + -고 있다/있었다

= Making a present progressive/past progressive form

돌아오다 → 돌아오고 있어요

to come back

to be coming back

기다리다 => ()

to wait

to be waiting

가까워지다 => ()

to get closer

to be getting closer

PAST TENSE PRACTICE

Ex) 팔다 to sell (infinitive form)

☞ 팔았어요 (Past tense)

1. 도착하다 to arrive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2. 나타나다 to appear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3. 가다 to go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4. 기다리다 to wait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돌아오다	a. to be strange
나타나다	b. to appear
이상하다	c. to pray
기다리다	d. to come back
가깝다	e. to be close
기도하다	f. to wait
떨어지다	g. to fall down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re were a mother and two boys living in a village. (T / F)
2. The tiger ate a rice-cake and the mother as well. (T / F)
3. The brother and a sister didn't open the door because the voice didn't sound like their mother.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mother didn't have any rice-cake left when she met the tiger.
2. The tiger went to the house wearing the mother's clothes.
3. The brother and a sister were so scared that they started to sing.

4. The tiger fell down from the sky because his hand was slippery.

ANSWER KEY

Grammar point

(기다리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Present tense practice

1. 도착했어요

2. 나타났어요

3. 갔어요

4. 기다렸어요

Vocabulary quiz

d, b, a, f, e, c, g

True or False

1. F

2. T

3. T

Choose the correct sentence.

(2)

흑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턱 밑에 큰 흑이 달린 착한 흑부리 영감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하루는 착한 흑부리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영감님이 열심히 나무를 하다 보니 날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어디 쉬어 갈 곳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허름한 집이었어요.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자려고 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감, 노랫소리 한번 듣기 좋소.”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물었어요.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무서워 온몸을 벌벌 떨었지만 능청스럽게 흑을 만지며 말했어요.

“내 노랫소리야 이 흑에서 나오지요.”

“그럼 그 흑이 바로 노래 주머니란 말이지?”

그러자 한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로 영감님의 흑을 툭 쳐서 떼어 냈어요.

“이 노래 주머니는 우리가 가져가겠소. 대신 이 금은보화를 주겠소.”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바닥을 ‘툭’ 하고 내려치니 온갖 금은보화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흑도 떼고 금은보화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착한 흑부리 영감을 찾아갔어요. 착한 흑부리 영감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당장 도깨비가 나오는 집을 찾아갔어요.

날이 저물자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노랫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도깨비를 본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말했어요.

“내 노랫소리 어떤가? 이 흑에서 나오는 거라네.”

“뭐? 노래 주머니라고? 거짓말쟁이 영감! 지난번에 준 흑도 가짜더니, 어딜 속이려고! 이 흑도 마저 가져가시오!”

도깨비들은 흑부리 할아버지의 턱에 흑을 하나 더 붙여 주었어요. 그렇게 욕심만 잔뜩 부리던 욕심쟁이 흑부리 할아버지는 흑 떼러 갔다가 흑이 하나 더 늘어서 돌아왔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마을에 턱 밑에 큰 혹이 달린 착한 흑부리 영감님이 살았어요.



턱 chin

밑 below, under

혹 lump

달리다 to hang, to be attached

영감님 old man

영감님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가난하다 to be poor

마음씨가 착하다 to be kind, to be warm-hearted

노래를 부르다 to sing a song

하루는 착한 흑부리 영감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산 mountain

나무를 하다 to cut wood

영감님이 열심히 나무를 하다 보니 날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금세 soon, shortly
어두워지다 to become dark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suddenly
빗방울 raindrop
떨어지다 to drop, to fall
시작하다 to start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어디 쉬어 갈 곳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쉬다 to take a rest
주위를 둘러보다 to look around

그때,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집 house
보이다 to be seen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허름한 집이었어요.



가까이 closely

다가가다 to approach

허름하다 to be shabby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고 가다 to stay for the night

들어가다 to go in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자려고 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무섭다 to be scared, to be fearful

잠이 오다 to be sleepy

그래서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부르다 to sing a song

그러자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깨비 goblin

“영감, 노랫소리 한번 듣기 좋소.”



듣기 좋다 to be good to listen to
묻다 to ask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물었어요.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무서워 온몸을 벌벌 떨었지만 능청스럽게 흑을 만지며
말했어요.



온몸 whole body
떨다 to shake, to tremble
능청스럽다 to be cunning, to be unctuous
만지다 to touch

“내 노랫소리야 이 흑에서 나오지요.”



나오다 to come out

“그럼 그 흑이 바로 노래 주머니란 말이지?”



주머니 pocket

그러자 한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로 영감님의 흑을 툭 쳐서 떼어 냈어요.



방망이 bat

치다 to hit

떼어 내다 to take off

“이 노래 주머니는 우리가 가져가겠소. 대신 이 금은보화를 주겠소.”



가져가다 to take, to bring, to carry

금은보화 treasure, valuables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바닥을 ‘툭’ 하고 내려치니 온갖 금은보화들이 나타났어요.



바닥 floor

나타나다 to appear

그렇게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흑도 떼고 금은보화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rich person

되다 to become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착한 흑부리 영감을 찾아갔어요.



소식 news

이웃 마을 neighboring village

욕심쟁이 greedy person

찾아가다 to go visit

착한 흑부리 영감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당장 도깨비가 나오는 집을 찾아갔어요.



날이 저물자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다 Night falls, It gets dark

그때, 밖에서 노랫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씩씩거리다 to huff and puff, in a huff

도깨비를 본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말했어요.



“내 노랫소리 어떤가? 이 흑에서 나오는 거라네.”



“뭐? 노래 주머니라고? 거짓말쟁이 영감! 지난번에 준 흑도 가짜더니, 어딜 속이려고! 이 흑도 마저 가져가시오!”



거짓말쟁이 liar

가짜 imitation, fraud

속이다 to deceive

도깨비들은 흑부리 할아버지의 턱에 흑을 하나 더 붙여 주었어요.



붙여 주다 to attach

그렇게 욕심만 잔뜩 부리던 욕심쟁이 흑부리 할아버지는 흑 떼러 갔다가 흑이 하나 더 늘어서 돌아왔습니다.



늘다 to increase

돌아오다 to come back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흑부리 영감

The old man with a lump

옛날 어느 마을에 턱 밑에 큰 혹이 달린 착한 흑부리 영감님이 살았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d old man who had a big lump under his chin.

영감님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The old man was poor but he was kind-hearted and good at singing.

하루는 착한 흑부리 영감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One day,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went to the mountain to cut wood.

영감님이 열심히 나무를 하다 보니 날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While he was hard at work, it quickly got dark.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Then, suddenly, raindrops started falling.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어디 쉬어 갈 곳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looked around to see if there were some places where he could rest.

그때,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어요.

Just then, he saw a house in the distance.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허름한 집이었어요.

He came closer to look, and it was a shabby house where nobody lived.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thought that he should stay there for the night, and he went into the house.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자려고 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질 않았어요.

But now that he was trying to sleep in the house where there was no one, he had scary thoughts and couldn't sleep.

그래서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So,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started to sing.

그러자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And then, the door burst open and goblins came in the house.

“영감, 노랫소리 한번 듣기 좋소.”

“Old man, your singing voice sounds good.”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지 물었어요.

The goblins asked the old man how to sing well.

착한 흑부리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무서워 온몸을 벌벌 떨었지만 능청스럽게 흑을 만지며 말했어요.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was scared and his whole body was trembling, but he said, while touching his lump and acting naturally.

“내 노랫소리야 이 혹에서 나오지요.”

“Of course my singing voice comes out from this lump.”

“그럼 그 혹이 바로 노래 주머니란 말이지?”

“Then, you’re saying that your lump is your song pocket, right?”

그러자 한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로 영감님의 혹을 툭 쳐서 떼어 냈어요.

Then, one of the goblins hit the old man’s lump with his bat and took it off.

“이 노래 주머니는 우리가 가져가겠소. 대신 이 금은보화를 주겠소.”

“We will take this song pocket. Instead, we will give you gold and jewels.”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바닥을 ‘툭’ 하고 내려치니 온갖 금은보화들이 나타났어요.

Goblins struck the floor with their bat, and shortly, all kinds of treasures appeared.

그렇게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혹도 떼고 금은보화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So,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had his lump removed and became a really rich person.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착한 혹부리 영감을 찾아갔어요.

Meanwhile, a greedy old man with a lump living in the neighboring village heard the news and went to visit the kind old man.

착한 혹부리 영감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The kind old man told him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so far.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은 당장 도깨비가 나오는 집을 찾아갔어요.

The greedy old man with a lump went to the house right away where goblins appear.

날이 저물자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When it got dark, the greedy old man started to sing.

그때, 밖에서 노랫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Then, the goblins that heard his singing voice outside came into the room in a huff.

도깨비를 본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이 말했어요.

The greedy old man saw the goblins and said,

“내 노랫소리 어떤가? 이 흑에서 나오는 거라네.”

“How is my singing voice? It is coming from this lump.”

“뭐? 노래 주머니라고? 거짓말쟁이 영감! 지난번에 준 흑도 가짜더니, 어딜 속이려고! 이 흑도 마저 가져가시오!”

“What? A song pocket? Liar! The one that you gave me last time was also a fake one. Who do you think you are trying to deceive? Here! Take this lump too!”

도깨비들은 흑부리 할아버지의 턱에 흑을 하나 더 붙여 주었어요.

The goblins attached one more lump on the old man's chin.

그렇게 욕심만 잔뜩 부리던 욕심쟁이 흑부리 할아버지는 흑 떼러 갔다가 흑이 하나 더 늘어서 돌아왔습니다.

So, the greedy old man with a lump, who would be greedy, went to get his lump removed but came back with one more.

GRAMMAR POINT

Verb stem + -기 시작하다

= Making a sentence using "to start to V"

to start 시작하다

시작해요 (Present form)

시작했어요 (Past form)

떨어지다 + 시작했어요 =>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to drop

It started.

It started to drop.

거짓말을 하다 + 시작했어요 => 거짓말을 ()

to tell a lie

(He) started.

(He) started to tell a lie.

노래를 부르다 + 시작했어요 => 노래를 ()

to sing a song

(He) started.

(He) started to sing a song.

FUTURE TENSE PRACTICE

Ex) 어두어지다 to become dark (Infinitive form)

☞ 어두워질 거예요 (Future tense)

1. 가져가다 to take, to bring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2. 노래를 부르다 to sing a song

_____ (Future tense)

3. 무섭다 to be scared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4. 쉬다 to take a rest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가난하다

a. to start

시작하다

b. to be poor

허름하다

c. to deceive

노래를 부르다

d. to touch

들어오다

e. to sing a song

만지다

f. to come in

속이다

g. to be shabby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went to the mountain because he wanted to meet goblins. (T / F)

2. Goblins thought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sang well due to his lump. (T / F)

3. The greedy old man with a lump went to the house and sang because he also wanted his lump removed.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knew there were goblins in the house.
2. Goblins asked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how he came the house.
3. The greedy old man with a lump went looking for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to take his money.
4. Goblins thought the greedy old man with a lump was the kind old man with a lump.

ANSWER KEY

Grammar point

(하기 시작했어요)

(부르기 시작했어요)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1. 가져갈 거예요 | 2. 노래를 부를 거예요 |
| 3. 무서울 거예요 | 4. 쉴 거예요 |

Vocabulary quiz

b, a, g, e, f, d, c

True or False

F, T, T

Choose the correct sentence.

(4)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이제 어쩌나... 흑흑흑”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은 서럽게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산신령님은 연못 옆에서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님의 손에 들린 도끼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놀란 나무꾼이 도끼를 자세히 살펴보다니 대답했어요.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번에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은도끼를 가리키며 나무꾼에게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님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내가 이 도끼를 상으로 모두 줄 테니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쇠도끼까지 모두 받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웃집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그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신의 낡은 쇠도끼를 연못으로 힘차게 던졌어요. 그러자, 연못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산신령님은 욕심쟁이 나무꾼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님이 이번에는 은도끼를 꺼내 드셨어요.

“이 도끼도 네 도끼냐?”

“네. 네. 그 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제가 나무를 하다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욕심이 많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가져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 산신령님이 크게 화가 나 소리치셨어요.

“이 못된 녀석!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산신령님은 모두 알고 계셨어요. 거짓말을 해 남의 도끼를 탐냈던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마저 잃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시골 country, countryside

마을 village

가난하다 to be poor

마음씨 착하다 to be kind-hearted

나무꾼 woodcutter

나무를 하다 to cut wood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미끄러지다 to slip

도끼 hatchet, axe

연못 pond

빠지다 to fall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이제 어쩌나... 흑흑흑”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은 서럽게 울었어요.



잃어버리다 to lose

서럽게 울다 to cry sadly

그때였어요.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빛이 나다 light shines

산신령 mountain god

나타나다 to appear

산신령님은 연못 옆에서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다 to ask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님의 손에 들린 도끼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손에 들린 도끼 ax in one's hand

반짝반짝 twinkle twinkle

빛나다 to shine, to glitter

놀란 나무꾼이 도끼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대답했어요.



놀라다 to be surprised

자세히 살펴보다 to take a close look

대답하다 to answer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번에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은도끼를 가리키며 나무꾼에게 물어보셨어요.



윤이 나다 to be shiny, to be glossy

가리키다 to point at

물어보다 to ask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낡다 to be worn, to be old

그러자 산신령님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웃다 to laugh

말씀하시다 to tell, to say (honorific)

“너는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내가 이 도끼를 상으로 모두 줄 테니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라.”



참으로 really, very

정직하다 to be honest

상 award

모두 all, everything, everyone

주다 to give

앞으로 in the future

착하게 살다 to live with a good attitude/kind heart

그렇게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쇠도끼까지 모두 받았어요.



금 gold

은 silver

쇠 iron

받다 to get, to receive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웃집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그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소식 news

전해 듣다 to hear from others

이웃집 neighbor

욕심쟁이 greedy person

달려가다 to run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신의 낡은 쇠도끼를 연못으로 힘차게 던졌어요.



힘차게 with full force

던지다 to throw

그러자, 연못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산신령님은 욕심쟁이 나무꾼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똑같다 to be the same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님이 이번에는 은도끼를 꺼내 드셨어요.



꺼내다 to pull out, to take out

들다 to pick up, to hold

“이 도끼도 네 도끼냐?”



“네. 네. 그 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제가 나무를 하다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실수 mistake

빠뜨리다 to drop, to miss, to forget

욕심이 많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가져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가져가다 to take, to bring

들뜨다 to be excited

그러자 그때, 산신령님이 크게 화가 나 소리치셨어요.



화가 나다 to be upset

소리치다 to shout out, to cry out

“이 못된 녀석!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거짓말을 하다 to tell a lie

하나도 -않다 not even one, not at all

산신령님은 모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다 to know (honorific)

거짓말을 해 남의 도끼를 탐냈던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마저 잃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탐내다 to be greedy, to desire, to covet

돌아가다 to go back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금도끼 은도끼

The golden axe and the silver axe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in a village in the countryside, a poor but warm-hearted woodcutter was cutting wood.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지면서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But then, his hands slipped and his axe fell into the pond.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이제 어쩌나... 흑흑흑”

“Oh my god, it was the only axe I had. What am I going to do?”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은 서럽게 울었어요.

The woodcutter, who had lost his only axe, cried sadly.

그때였어요.

It was at that moment.

연못 안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A light shone in the pond and a mountain god appeared.

산신령님은 연못 옆에서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물어보셨어요.

The mountain god asked the woodcutter who was crying next to the pond.

“이 도끼가 네 도끼냐?”

“Is this axe yours?”

산신령님의 손에 들린 도끼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였어요.

The ax in the mountain god's hand was a glittering gold axe.

놀란 나무꾼이 도끼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대답했어요.

Surprised, the woodcutter took a close look at the axe and answered.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That is not my axe.”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Then, is this axe yours?”

이번에는 번쩍번쩍 윤이 나는 은도끼를 가리키며 나무꾼에게 물어보셨어요.

This time, the mountain god asked the woodcutter, pointing at a shiny silver axe.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That is also not mine. My axe is an old steel axe.”

그러자 산신령님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 mountain god laughed “Haha” and said,

“너는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내가 이 도끼를 상으로 모두 줄 테니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라.”

“You are a very honest woodcutter. I will give you all these axes, so keep up the good attitude.”

그렇게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자신의 낡은 쇠도끼까지 모두 받았어요.

So, the honest woodcutter received all the axes, including the gold one, the silver one, and his own old steel axe.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웃집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그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His neighbor, a greedy woodcutter, who had heard about news, ran to the pond right away.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신의 낡은 쇠도끼를 연못으로 힘차게 던졌어요.

The greedy woodcutter threw his old steel axe with full force into the pond.

그러자, 연못에서 빛이 나더니 산신령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And then, a light shone from the pond, and the mountain god appeared again.

산신령님은 욕심쟁이 나무꾼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The mountain god asked the greedy woodcutter the same question.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Is this gold axe yours?”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Yes. That’s right. That is exactly my axe.”

그러자 산신령님이 이번에는 은도끼를 꺼내 드셨어요.

Then, the mountain god pulled the silver axe out this time.

“이 도끼도 네 도끼냐?”

“Is this axe yours too?”

“네. 네. 그 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제가 나무를 하다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Yes. Yes. That is also my axe. I accidently dropped it while I was cutting wood.”

욕심이 많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가져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The greedy woodcutter was excited at the thought of taking both the gold axe and the silver one.

그러자 그때, 산신령님이 크게 화가 나 소리치셨어요.

But then, the mountain god shouted with rage.

“이 못된 녀석!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도끼를 하나도 줄 수 없다!”

“You cunning man! How dare you tell a lie to me! I can’t give any axe to a greedy person like you!”

산신령님은 모두 알고 계셨어요.

The mountain god knew everything.

거짓말을 해 남의 도끼를 탐냈던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자신의 도끼마저 잃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In the end, the greedy woodcutter, who wanted to get other people’s axes by lying, went back home after even losing his own axe.

GRAMMAR POINT

Verb stem + -(으)시다 (-(으)श्य)

= Making a formal polite Korean (존댓말)

Verb stems ending with a vowel + -시

Verb stems ending with a consonant + -으시

나타나다 => 나타나시다 (나타나श्य)

to appear

물어보다 => ()

to ask

소리치다 => ()

to shout

앉다 => ()

to sit

PRESENT TENSE PRACTICE

Ex) 살다 to live (infinitive form)

☞ 살아요 (Present tense)

1. 울다 to cry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2. 물어보다 to ask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3. 받다 to get, to receive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4. 돌아가다 to go back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잃어버리다

a. to shout out

울다

b. to lose

물어보다

c. to be worn, to be old

대답하다

d. to answer

낡다

e. to cry

화나다

f. to ask

소리치다

g. to get angry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kind woodcutter had just one axe. (T / F)

2. The kind woodcutter said to the mountain god that the gold axe was his.
(T / F)

3. The mountain god gave the kind woodcutter all of the axes because he
looked poor.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kind woodcutter cried in the mountain because he was hungry.
2. The kind woodcutter got all three axes because he told the mountain god that he wanted them all.
3. The greedy woodcutter also lost his axe by mistake.
4. The mountain god got angry because he knew that the greedy woodcutter was telling a lie.

ANSWER KEY

Grammar point

물어보시다 (물어보श्य)

소리치시다 (소리치श्य)

앉으시다 (앉으श्य)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
| 1. 울어요 | 2. 물어봐요 | 3. 받아요 | 4. 돌아가요 |
|--------|---------|--------|---------|

Vocabulary quiz

b, e, f, d, c, g, a

True or False

- | | | |
|------|------|------|
| 1. T | 2. F | 3. F |
|------|------|------|

Choose the correct sentence.

(4)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거꾸로 행동해서 엄마 청개구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얘야, 더러운 곳에서 놀면 안 된다.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 해.”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마구 헤엄을 치며 놀았어요.

“숲 속에는 뱀이 많으니까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일부러 숲 속에 가서 놀다가 하마터면 뱀한테 잡아 먹힐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얘야, '개굴개굴' 하고 힘차게 울어 봐라.”

엄마가 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들 청개구리는 항상 '굴개굴개' 하고 울었어요. 이렇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이면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며 엄마 청개구리의 속을 썩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그만 큰 병에 걸렸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죽으면 양지바른 산에다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 줘야 한다.”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의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다 물어 달라고 하면 반대로 양지바른 산에다 물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 말을 남기고 엄마 청개구리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흑흑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아들 청개구리는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남기신 말씀은 꼭 들어야지.’

결국,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말한 그대로 엄마 청개구리를 시냇가에 묻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크게 소리 내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고 울어댄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연못 pond

청개구리 green frog

엄마 mom

아들 son

살다 to live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어요.



말을 듣다 to listen to someone

지독히 grossly, terribly

뿐만 아니라 엄마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거꾸로 행동해서 엄마 청개구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besides, moreover

말씀하다 to tell, to say (honorific)

무엇이든 whatever

거꾸로 in the other way, in reverse

행동하다 to act

마음을 아프게 하다 to hurt someone's feelings, to break someone's heart

“얘야, 더러운 곳에서 놀면 안 된다.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 해.”



더럽다 to be dirty

놀다 to play

깨끗하다 to be clean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마구 헤엄을 치며 놀았어요.



지저분하다 to be messy

흙탕물 muddy water

마구 wildly, violently, badly, recklessly

헤엄치다 to swim

“숲 속에는 뱀이 많으니까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숲 forest

뱀 snake

위험하다 to be dangerous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일부러 숲 속에 가서 놀다가 하마터면 뱀한테 잡아 먹힐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on purpose

하마터면 -뻔 하다 almost, nearly
잡아 먹히다 to be eaten by

“얘야, '개굴개굴' 하고 힘차게 울어 봐라”



울다 to cry

엄마가 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들 청개구리는 항상 '굴개굴개' 하고 울었어요.



-는 법 how to

이렇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이면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며 엄마 청개구리의 속을 썩였어요.



무조건 unconditional
반대 the opposite, the contrary
속을 썩이다 to worry someone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그만 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다 to get a disease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죽으면 양지바른 산에다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 줘야 한다.”



죽다 to die

양지 sunny spot

양지바르다 (a spot) to get a lot of sunlight

산 mountain

시냇가 stream

묻다 to bury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의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걱정되다 to be worried

그래서 시냇가에다 묻어 달라고 하면 반대로 양지바른 산에다 묻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생각하다 to think

이 말을 남기고 엄마 청개구리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기다 to leave

세상을 떠나다 to leave this world, to pass away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목 놓아 울었어요.



죽다 to die

목 놓아 울다 to cry bitterly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잘못 fault

반성하다 to reflect on/regret one's wrongdoing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흑흑흑...”



돌아가시다 to pass away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아들 청개구리는 생각했어요.



잘못을 뉘우치다 to regret one's mistake/wrongdoing

‘마지막으로 엄마가 남기신 말씀은 꼭 들어야지.’



마지막 last

결국,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말한 그대로 엄마 청개구리를 시냇가에 묻었어요.



그대로 as it is

그날 이후, 아들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크게 소리 내어 울었어요.



무덤 grave

떠내려가다 to be swept away, to be washed away

노심초사하다 to be very worried about, to fret about

크게 loudly

소리 내어 울다 to cry aloud, to weep noisily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고 울어댄답니다.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말 안 듣는 청개구리

The green frog who won't listen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In a small pond, a mother green frog and a son green frog lived.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어요.

The son green frog never listened to his mother.

뿐만 아니라 엄마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거꾸로 행동해서 엄마 청개구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Whatever she said, he would do the exact opposite and break her heart.

“얘야, 더러운 곳에서 놀면 안 된다.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 해.”

“Kid, do not play in dirty places. You must play in clean places.”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마구 헤엄을 치며 놀았어요.

If the mother green frog says this, the son green frog would swim and play wildly in dirty muddy water.

“숲 속에는 뱀이 많으니까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There are a lot of snakes in the forest, so do not go there. It's dangerous.”

엄마 청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일부러 숲 속에 가서 놀다가 하마터면 뱀한테 잡아 먹힐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If the mother green frog says this, the son green frog would go to the forest and play on purpose, and more than a couple of time, he almost got eaten by a snake.

“애야, '개굴개굴' 하고 힘차게 울어 봐라”

“Kid, cry loudly like “Ribbit, ribbit.””

엄마가 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들 청개구리는 항상 '굴개굴개' 하고 울었어요.

When the mother teaches him how to cry, the son green frog would always cry “Tibbri, tibbri.”

이렇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이면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며 엄마 청개구리의 속을 썩였어요.

Like this, the son green frog would worry his mother by always doing the opposite of whatever she said.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그만 큰 병에 걸렸어요.

One day, the mother green frog got a serious illness.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The mother green frog called her son and said this.

“애야, 내가 죽으면 양지바른 산에다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 줘야 한다.”

“Kid, when I die, make sure you don't bury me on the mountain where it's sunny, but bury me next to the stream.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의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The mother green frog was worried about her son who would always do the opposite of what she says.

그래서 시냇가에다 묻어 달라고 하면 반대로 양지바른 산에다 묻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So she said that because she thought if she told him to bury her by the stream, he would bury her in the sunny mountain.

이 말을 남기고 엄마 청개구리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Leaving these words behind, the mother green frog ended up passing away.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목 놓아 울었어요.

When the mother green frog died, the son green frog cried bitterly.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And he regretted what he done wrong so far.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흑흑흑...”

“Mom passed away because of me... [sobbing sound]”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아들 청개구리는 생각했어요.

The son green frog, who regretted his own faults, thought,

‘마지막으로 엄마가 남기신 말씀은 꼭 들어야지.’

‘I should listen to my mom’s last words.’

결국,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말한 그대로 엄마 청개구리를 시냇가에 묻었어요.

In the end, the son green frog buried his mother next to the stream just like she said.

그날 이후, 아들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크게 소리 내어 울었어요.

After that day, the son green frog would cry out loud, worrying that his mother's
grave would be swept away in the rain, whenever it rained.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고 울어댄답니다.

That's why even to this day, green frogs cry "ribbit, ribbit" on rainy days.

GRAMMAR POINT

Verb stem + -는 법

= Making a phrase meaning "How to + Verb"

Verb stem + -는 법

If the verb stem ends with the ㄹ consonant, ㄹ is dropped to make the
pronunciation easier.

울다	+	-는 법	=>	(우는) 법
to cry		How to V		How to cry

하다	+	-는 법	=>	() 법
to do		How to V		How to do

먹다	+	-는 법	=>	() 법
to eat		How to V		How to eat

PRESENT TENSE PRACTICE

Ex) 행동하다 to act (Infinitive form)

☞ 행동했어요. (past tense)

1. 놀다 to play, to hang out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2. 울다 to cry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3. 말하다 to say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4. 생각하다 to think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말을 듣다

행동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위험하다

걱정되다

죽다

a. to be worried

b. to listen to someone

c. to be dirty

d. to be clean

e. to act

f. to die

g. to be dangerous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son green frog never listened to his mom before she died. (T / F)
2. The mom green frog was always worried about her son because he didn't have any friends. (T / F)
3. The son green frog regretted that he had not listened to his mom.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son green frog never listened to his dad.
2. The mom green frog died due to a serious accident.
3. The mom green frog told her son to bury her beside a stream because she thought he would not change even after she dies.
4. The son green frog was very proud of himself about burying his mom beside a stream.

ANSWER KEY

Grammar point

(하는)

(먹는)

Present tense practice

1. 놀았어요
2. 울었어요
3. 말했어요
4. 생각했어요

Vocabulary quiz

b, e, d, c, g, a, f

True or False

1. T
2. F
3. T

Choose the correct sentence.

(3)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어요. 어느 날,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 말을 했어요.

“나무꾼님, 나무꾼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불쌍해 나무 뒤에 숨겨 주었어요. 곧 무섭게 생긴 사냥꾼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방금 이곳으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지 않았소?”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안심한 사슴이 나와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무꾼님. 제 목숨을 살려 주셨어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무꾼은 장가를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슴이 말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올라가세요.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거기 가서 선녀님들이 벗어 놓은 날개옷 하나를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니 그 선녀를 아내로 맞으시면 될 거예요.”

요. 하지만 선녀님과 결혼해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선녀님에게 날개옷을 절대 돌려주시면 안 돼요.”

보름달이 뜨는 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선녀님들 몇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살금살금 몰래 다가가 날개옷 하나를 훔쳤어요. 얼마 후, 선녀님들이 목욕을 다 끝내고 하나둘 하늘 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흑흑...”

날개옷이 없어진 한 선녀님이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나무꾼이 선녀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녀님, 제가 선녀님의 날개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그렇게 나무꾼은 선녀님과 결혼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둘 사이에서는 아이도 둘이나 태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녀님이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이도 둘이나 낳았으니 제 날개옷을 돌려주세요. 한 번만 입어 보고 싶어요.”

간곡히 애원하는 선녀가 가여워 나무꾼은 감춰 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주었어요. 그러자 선녀님이 너무 기뻐하며 날개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 깜짝할 사이 선녀님이 아이 둘을 한 팔에 하나씩 안고 하늘 나라로 날아가 버렸어요.

“여보! 여보! 가지 말아요!”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아이와 아내는 하늘 나라로 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 a long time ago
가난하다 to be poor
부지런하다 to be diligent
나무꾼 woodcutter
살다 to live

나무꾼은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어요.



나이 age
넘다 to surpass, to go over
장가 marriage (for a guy)
노총각 old bachelor

어느 날,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 말을 했어요.



산 mountain
나무를 하다 to cut wood

사슴 deer

달려오다 to come running

말하다 to tell

“나무꾼님, 나무꾼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살려 주다 to save, to rescue, to make safe

사냥꾼 hunter

잡다 to catch

쫓아오다 to follow, to chase

나무꾼은 사슴이 불쌍해 나무 뒤에 숨겨 주었어요.



불쌍하다 to be pitiful

숨겨 주다 to harbor, to give refuge to

곧 무섭게 생긴 사냥꾼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무섭게 생기다 to look scary

묻다 to ask

“이보시오, 방금 이곳으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지 않았소?”



뛰어오다 to come running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to run away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다 to tell a lie

사냥꾼이 사라지자, 안심한 사슴이 나와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사라지다 to disappear

안심하다 to relax, to feel relieved

“감사합니다, 나무꾼님. 제 목숨을 살려 주셨어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목숨 life

소원 wish, hope

말씀하다 to tell (honorific)

나무꾼은 장가를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슴이 말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올라가세요. “



보름달 full moon

뜨다 to rise, to come up

꼭대기 top

연못 pond

올라가다 to go up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



선녀님 fairy

목욕 bath

내려오다 to come down

“거기 가서 선녀님들이 벗어 놓은 날개옷 하나를 감추세요.“



벗어 놓다 take off (clothes) and put down

날개옷 wing clothes (celestial robes)

감추다 to hide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니 그 선녀를 아내로 맞으시면 될 거예요.



아내 wife

맞다 to marry, to take

하지만 선녀님과 결혼해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선녀님에게 날개옷을 절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아이 child

낳다 to give birth to, to bear

돌려 주다 to give back

보름달이 뜨는 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선녀님들 몇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살금살금 몰래 다가가 날개옷 하나를 훔쳤어요.



살금살금 quietly, secretly (mimetic word)

몰래 secretly

다가가다 to approach

훔치다 to steal

얼마 후, 선녀님들이 목욕을 다 끝내고 하나둘 하늘 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흑흑...”



없어지다 to be missing, to be lost

날개옷이 없어진 한 선녀님이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서럽게 sadly

울다 to cry

그때, 나무꾼이 선녀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녀님, 제가 선녀님의 날개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결혼하다 to marry

행복하다 to be happy

그렇게 나무꾼은 선녀님과 결혼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둘 사이에서는 아이도 돌이나 태어났어요.



세월이 흐르다 time passes
아이가 태어나다 a baby is born

그러던 어느 날, 선녀님이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이도 돌이나 낳았으니 제 날개옷을 돌려주세요. 한 번만 입어 보고 싶어요.”



간곡히 애원하는 선녀가 가여워 나무꾼은 감춰 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주었어요.



간곡히 desperately
애원하다 to beg, to plead
가연다 to feel pity
꺼내 주다 to take (something) out and give

그러자 선녀님이 너무 기뻐하며 날개옷을 입었어요.



기뻐하다 to be pleased, to get excited
옷을 입다 to wear clothes, to put on clothes

그런데 그때, 눈 깜짝할 사이 선녀님이 아이 둘을 한 팔에 하나씩 안고 하늘 나라로 날아가 버렸어요.



안다 to hug

날아가다 to fly away

“여보! 여보! 가지 말아요!”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아이와 아내는 하늘 나라로 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눈물을 흘리다 to shed tears

후회하다 to regret

영영 forever, permanently

돌아오다 to come back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선녀와 나무꾼

The fairy and the woodcutter

옛날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poor but diligent woodcutter.

나무꾼은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어요.

The woodcutter was an old bachelor who had not been able to get married even after he was 30 years old.

어느 날,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 말을 했어요.

One day, while he was working hard cutting wood, a deer came running to him from somewhere and said,

“나무꾼님, 나무꾼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사냥꾼이 절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Woodcutter, woodcutter, please save me. A hunter is coming after me to catch me.”

나무꾼은 사슴이 불쌍해 나무 뒤에 숨겨 주었어요.

The woodcutter felt pity for the deer, so he hid the deer behind a tree.

곧 무섭게 생긴 사냥꾼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Soon, a scary-looking hunter appeared and asked the woodcutter.

“이보시오, 방금 이곳으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지 않았소?”

“Hey, didn’t a deer come running this way?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It ran away that way.”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The woodcutter lied to the hunter.

사냥꾼이 사라지자, 안심한 사슴이 나와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Once the hunter disappeared, the deer, relieved, came out and said to the woodcutter.

“감사합니다, 나무꾼님. 제 목숨을 살려 주셨어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Thank you, woodcutter. You saved my life. If you have a wish, please tell me anything. I will grant it.”

나무꾼은 장가를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The woodcutter said that his wish was to get married.

그러자 사슴이 말했어요.

Then, the deer said.

“보름달이 뜨는 날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올라가세요. “

“The day when the full moon rises, go up to the pond on top of the mountain.”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

“Fairies from the sky will come down to take a bath there.”

“거기 가서 선녀님들이 벗어 놓은 날개옷 하나를 감추세요.”

“Go there and hide one of the wing clothes (celestial robes) that they have taken off.”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니 그 선녀를 아내로 맞으시면 될 거예요.

A fairy without her wing clothes can't go up to the sky, so you just have to take her as your wife.

하지만 선녀님과 결혼해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선녀님에게 날개옷을 절대 돌려주시면 안 돼요.”

But, until you marry the fairy and have three children with her, you should never give her wing clothes back to her.

보름달이 뜨는 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갔어요.

When the full moon rose, the woodcutter went to the pond on top of the mountain as the deer said.

그곳에는 정말 선녀님들 몇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There, some fairies were really taking a bath.

나무꾼은 살금살금 몰래 다가가 날개옷 하나를 훔쳤어요.

The woodcutter snuck up to them and stole one of their wing clothes.

얼마 후, 선녀님들이 목욕을 다 끝내고 하나둘 하늘 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A while later, the fairies finished taking a bath and started going up to the sky one by one.

“아니,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흑흑...”

“Oh, no! Where are my wing clothes? My wing clothes have disappeared. What should I do...?”

날개옷이 없어진 한 선녀님이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One fairy who had lost her wing clothes couldn't go up to the sky, and was crying sadly.

그때, 나무꾼이 선녀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Then, the woodcutter approached her and said,

“선녀님, 제가 선녀님의 날개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Fairy, I have your wing clothes. So please marry me. I will make you happy.”

그렇게 나무꾼은 선녀님과 결혼을 했어요.

Like that, the woodcutter married the fairy.

세월이 흘러, 둘 사이에서는 아이도 둘이나 태어났어요.

Some time passed, and between them, two children were born.

그러던 어느 날, 선녀님이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And then one day, the fairy said to the woodcutter,

“이제 아이도 둘이나 낳았으니 제 날개옷을 돌려주세요. 한 번만 입어 보고 싶어요.”

“Since I've already given birth to two children, please give me back my wing clothes. I want to wear them just once.”

간곡히 애원하는 선녀가 가여워 나무꾼은 감춰 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주었어요.

The woodcutter felt pity for her bagging desperately, so he took out the wing clothes that he was hiding, and gave them to her.

그러자 선녀님이 너무 기뻐하며 날개옷을 입었어요.

And then, very excited, the fairy put on her wing clothes.

그런데 그때, 눈 깜짝할 사이 선녀님이 아이 둘을 한 팔에 하나씩 안고 하늘 나라로 날아가 버렸어요.

But then, within a split second, the fairy flew up to the sky, with the two kids, one in each of her arms.

“여보! 여보! 가지 말아요!”

“Honey! Honey! Don’t go!”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아이와 아내는 하늘 나라로 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The woodcutter shed tears in regret, but his children and their wife went to the sky and never returned again.

GRAMMAR POINT

Verb stem + -(으)려고

= Expressing one's intention ("to V" / "In order to V")

Verb stem ending with a vowel + -려고

Verb stem ending with a consonant + -으려고


잡다	+	-으려고	=>	(잡으려고)
to catch		in order to			in order to catch	

자다	+	-(으)려고	=>	()
to sleep		in order to			in order to sleep	

읽다	+	-(으)려고	=>	()
to read		in order to			in order to read	

PRESENT TENSE PRACTICE

Ex) 말하다 to tell (Infinitive form)

 말할 거예요 (Future tense)

1. 살려 주다 to save, to rescue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2. 사라지다 to disappear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3. 잡다 to catch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4. 결혼하다 to marry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말하다	a. to wear clothes
불쌍하다	b. to hide
안심하다	c. to be relieved
감추다	d. to be pleased
흠치다	e. to be pitiful
기 빼하다	f. to steal
옷을 입다	g. to tell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woodcutter helped the deer because he wanted to get married. (T / F)
2. The deer told the woodcutter that he should steal one of fairies' wing clothes if he wanted to get married. (T / F)
3. The fairy couldn't go up to the sky because she had lost her wing clothes.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woodcutter told a lie to the hunter because he wanted to catch the deer himself.
2. The deer said to the woodcutter that he should never give the fairy's clothes back before they get married.
3. There are two kids between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4. The woodcutter went after his wife and children to the sky.

ANSWER KEY

Grammar point

(자려고)

(읽으려고)

Future tense practice

1. 살려 줄 거예요
2. 사라질 거예요
3. 잡을 거예요
4. 결혼할 거예요

Vocabulary quiz

g, e, c, b, f, d, a

True or False

1. F
2. T
3. T

Choose the correct sentence.

(3)

요술 맷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요술 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술 맷돌은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었어요. 맷돌을 돌리면서 “나와라, 밥!” 하고 외치면 밥이 나오고, “그쳐라, 밥!” 하면 딱 그치는 신기한 요술 맷돌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요술 맷돌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술 맷돌 소식을 들은 옆 나라의 도둑이 궁궐 벽을 넘어 들어와 임금님의 요술 맷돌을 훔쳤어요. 도둑은 요술 맷돌을 훔쳐 아주 멀리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어요. 도둑은 요술 맷돌로 부자가 될 생각에 아주 행복해졌어요. 도둑은 요술 맷돌에서 소금이 많이 나온다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둑은 맷돌을 돌리면서 소리쳤어요.

“나와라, 소금!”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쌓여 가는 소금을 보고 도둑은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나도 부자다!”

욕심이 많은 도둑은 맷돌을 더 힘차게 돌리며 “나와라, 소금!”을 계속 외쳤어요. 그러자 맷돌에서 더 빠르게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둑의 욕심만큼 배 안에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갔어요. 그때,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 큰일이다. 배가 기울고 있어!”

점점 배가 가라앉자 도둑은 너무 당황해서 요술 맷돌을 멈추는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도둑은 “그쳐라, 소금!”이라는 말을 끝내 못 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맷돌은 여전히 바닷속에서 쉬지 않고 돌며 소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바닷물이 짠 이유가 바로 이 소금이 나오는 요술 맷돌 때문이래요.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 king, emperor

임금님은 요술 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술 magic

맷돌 millstone

가지고 있다 to have

이 요술 맷돌은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었어요.



만들어 내다 to make

맷돌을 돌리면서 “나와라, 밥!” 하고 외치면 밥이 나오고, “그쳐라, 밥!” 하면 똑 그치는 신기한 요술 맷돌이었어요.



돌리다 to turn, to spin
나오다 to come out
밥 meal, rice
외치다 to shout, to yell
그치다 to stop
신기하다 to be interesting, to be amazing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요술 맷돌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다 to be jealous, to be envious

그러던 어느 날, 요술 맷돌 소식을 들은 옆 나라의 도둑이 궁궐 벽을 넘어 들어와 임금님의 요술 맷돌을 훔쳤어요.



소식 news
옆 next, neighboring
나라 country
도둑 thief
궁궐 palace
벽 wall
넘다 to climb over
들어오다 to come in

훔치다 to steal

도둑은 요술 맷돌을 훔쳐 아주 멀리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멀리 far away

달아나다 to run away

생각하다 to think

그래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어요.



바다 sea, ocean

건너다 to cross over

배 ship

타다 to ride

도둑은 요술 맷돌로 부자가 될 생각에 아주 행복해졌어요.



부자 rich person

행복해지다 to become happy

도둑은 요술 맷돌에서 소금이 많이 나온다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소금 salt

자신 oneself

그래서 도둑은 맷돌을 돌리면서 소리쳤어요.



소리치다 to shout, to exclaim

“나와라, 소금!”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지다 to pour

나오다 to come out

쌓여 가는 소금을 보고 도둑은 너무 기뻐했어요.



쌓이다 to pile up

기쁘다 to be pleased

“이제 나도 부자다!”



욕심이 많은 도둑은 맷돌을 더 힘차게 돌리며 “나와라, 소금!”을 계속 외쳤어요.



욕심이 많다 to be greedy
힘차게 forcibly, powerfully
계속 continuously

그러자 맏돌에서 더 빠르게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quickly
시작하다 to start

도둑의 욕심만큼 배 안에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갔어요.



산더미 a mountain of, a huge pile of

그때,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무게 weight
견디다 to endure, to bear
기울다 to sway

도둑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하다 to be embarrassed, to be puzzled

“어, 큰일이다. 배가 기울고 있어!”



기울다 to incline, to lean

점점 배가 가라앉자 도둑은 너무 당황해서 요술 맷돌을 멈추는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가라앉다 to sink

주문 spell, incantation

잊어버리다 to forget

결국 도둑은 “그쳐라, 소금!”이라는 말을 끝내 못 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맷돌은 여전히 바닷속에서 쉬지 않고 돌며 소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여전히 still

쉬다 to rest, to have a rest

바닷물이 짠 이유가 바로 이 소금이 나오는 요술 맷돌 때문이래요.



짜다 to be salty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요술 맷돌

The magic millstone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g.

임금님은 요술 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The king had a magic millstone.

이 요술 맷돌은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었어요.

This millstone could make anything.

맷돌을 돌리면서 “나와라, 밥!” 하고 외치면 밥이 나오고, “그쳐라, 밥!” 하면 똑 그치는 신기한 요술 맷돌이었어요.

It was an amazing millstone that would make food if you shouted “Come out, food!” while turning it, and would stop if you said “Stop, food!.”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요술 맷돌을 부러워했어요.

Everybody was jealous of the king's millstone.

그러던 어느 날, 요술 맷돌 소식을 들은 옆 나라의 도둑이 궁궐 벽을 넘어 들어와 임금님의 요술 맷돌을 훔쳤어요.

And then one day, a thief in a neighboring country, who heard the news about the millstone, climbed over the palace wall and came in, and stole the king's magic millstone.

도둑은 요술 맷돌을 훔쳐 아주 멀리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The thief thought that he would steal the magic millstone and flee far away.

그래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어요.

So, he got on a boat to cross the sea.

도둑은 요술 맷돌로 부자가 될 생각에 아주 행복해졌어요.

The thief got very happy at the thought of becoming a rich man using the magic millstone.

도둑은 요술 맷돌에서 소금이 많이 나온다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The thief thought that he could become rich if a lot of salt came out of the magic millstone.

그래서 도둑은 맷돌을 돌리면서 소리쳤어요.

So, the thief shouted while turning the millstone.

“나와라, 소금!”

“Come out, salt!”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And then, white salt poured out of the millstone.

쌓여 가는 소금을 보고 도둑은 너무 기뻐했어요.

Looking at the salt piling up, the thief was very happy.

“이제 나도 부자다!”

“Now I’m rich, too!”

욕심이 많은 도둑은 맷돌을 더 힘차게 돌리며 “나와라, 소금!”을 계속 외쳤어요.

The greedy thief kept shouting “Come out, salt!”, turning the millstone more powerfully.

그러자 맷돌에서 더 빠르게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And then, from the millstone, salt started to pour out faster.

도둑의 욕심만큼 배 안에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갔어요.

Salt was piling up like a mountain as big as the thief’s greed.

그때,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And then, the boat couldn’t bear the weight of the salt and started to shake.

도둑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The thief started to panic.

“어, 큰일이다. 배가 기울고 있어!”

“Oh, no. The boat is tilting!”

점점 배가 가라앉자 도둑은 너무 당황해서 요술 맷돌을 멈추는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As the boat started to sink, the thief, in panic, forgot the spell to stop the millstone.

결국 도둑은 “그쳐라, 소금!”이라는 말을 끝내 못 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았어요.

In the end, the thief ended up not being able to say “Stop, salt!” and sunk with the boat.

그래서 맷돌은 여전히 바닷속에서 쉬지 않고 돌며 소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So, the millstone is still turning under the sea and making salt.

바닷물이 짠 이유가 바로 이 소금이 나오는 요술 맷돌 때문이래요.

They say that the reason why the seawater is salty is none other than the magic millstone that makes salt.

GRAMMAR POINT

Verb stem + -(으)ㄴ 수 있다/없다

= Can / Can't

Verb stems ending with a vowel + -ㄴ 수 있다/없다

Verb stems ending with a consonant + -을 수 있다/없다

되다	+	-(으)ㄴ 수 있다	=>	(될 수 있다)
to become		can			can become	

춤추다	+	-(으)ㄴ 수 없다	=>	()
to dance		can't			can't dance	

접다	+	-(으)ㄴ 수 있다	=>	()
to fold		can			can fold	

PRESENT TENSE PRACTICE

Ex) 부러워하다 to be jealous, to be envious (Infinitive form)

☞ 부러워해요 (Present tense)

1. 건너다 to cross over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2. 훔치다 steal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3. 소리치다 to shout out, to exclaim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4. 잊어버리다 to forget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소식

a. to be salty

들어오다

b. to be embarrassed, to be puzzled

타다

c. news

소금

d. to be greedy

욕심이 많다

e. to ride

당황하다

f. to come in

짜다

g. salt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king had a millstone that he used to make everything he wanted. (T / F)
2. After the thief stole the millstone, he ran away by driving his car. (T / F)
3. The thief didn't know how to use the millstone.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thief thought he could be rich if he made a lot of houses with the millstone.
2. The thief wanted to make a boat with the millstone.
3. The thief started to be puzzled when the millstone made sugar.
4. The thief ended up sinking to the sea with the boat.

ANSWER KEY

Grammar point

(춤출 수 없다)

(접을 수 있다)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1. 건너요 | 2. 훔쳐요 |
| 3. 소리쳐요 | 4. 잊어버려요 |

Vocabulary quiz

c, f, e, g, d, b, a

True or False

T, F,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4)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와 흥부네 가족을 모두 내쫓았어요.

흥부네 가족은 놀부에게 쫓겨나 산 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굶주린 아이들이 칭얼대자 흥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요.

“형님, 제발 보리쌀이라도 꺾 주세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놀부는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고 형수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흥부는 주걱에 붙은 밥알이라도 얻을까 하고 또 뺨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흥부는 결국 음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어요. 제비 한 쌍이 흥부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어요. 곧 새끼 제비들이 알을 까고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흥부는 새끼 제비를 가엾게 여기고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착한 흥부 덕분에 새끼 제비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흥부네 동지를 떠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준비를 했어요.

“조심히 가거라! 내년엔 꼭 다시 와야 해!”

다음 해 봄, 제비들은 잊지 않고 다시 흥부네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빠 제비가 흥부의 머리위를 빙빙 돌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어요. 바로 박씨였어요. 흥부는 제비가 선물한 박씨를 땅에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들이 지붕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 부부는 박을 따서 톱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러자 “퐁!” 소리가 나며 박이 갈라지더니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흥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 쌀이야?”

흥부 부부는 다른 박을 골라 톱질을 했어요. “퐁” 소리가 나더니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퐁!”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왔어요. “퐁!” 이번에는 하인들이 나와 흥부에게 인사했어요. 그렇게 흥부는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흥부의 소식을 전해 들은 놀부가 흥부를 찾아갔어요. 심술이 난 놀부가 자초지종을 묻자 흥부는 놀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산으로 올라가 제비를 찾아다녔어요. 마침 제비를 발견한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어요. 그러고선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어요.

“내가 다리를 치료해 주었으니 내년 봄엔 꼭 박씨를 물어와야 한다.”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 제비가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박씨를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집 지붕에도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야.”

놀부는 부인과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툭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평” 하고 박이 갈라지더니 박 속에서 금은보화는 커녕 무서운 도깨비들이 몰려나왔어요. 도깨비들은 못된 놀부를 혼내 주었어요. 도깨비들에게 집까지 빼앗긴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놀부의 소식을 들은 착한 흥부는 놀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지가 된 놀부를 보고 놀란 흥부는 놀부에게 말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놀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에게 사과했어요. 결국 흥부와 놀부는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 brother

살고 있다 to be living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마음씨가 고약하다 to be ill-tempered

착하다 to be kind, to be kind-hearted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와 흥부네 가족을 모두 내쫓았어요.



돌아가시다 to pass away

재산 asset, property

차지하다 to take possession, to take over

가족 family

내쫓다 to kick someone out

흥부네 가족은 놀부에게 쫓겨나 산 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오두막집 hut, cabin
짓다 to build

“아버지, 배고파요.”



배고프다 to be hungry

굶주린 아이들이 칭얼대자 흥부는 가슴이 아팠어요.



굶주리다 to starve, go hungry
칭얼대다 to whine, to whimper
가슴이 아프다 to be heart-broken

어쩔 수 없이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다 to go and look for

“형님, 제발 보리쌀이라도 꺾 주세요.”



보리쌀 grain of barley
꺾 주다 to lend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놀부는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고 형수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달려들다 to attack, to fly at, to go at

빗자루 broom

형수 older brother's wife (for guys)

주걱 rice paddle

뺨 cheek

때리다 to hit, to punch

흥부는 주걱에 붙은 밥알이라도 얻을까 하고 또 뺨을 내밀었어요.



밥알 grain of cooked rice

얻다 to get, to gain

내밀다 to stick out, to reach out

하지만 흥부는 결국 음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어요.



제비 한 쌍이 흥부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어요.



제비 swallow

한 쌍 one couple

처마 eaves

둥지 nest

둥지를 틀다 to build a nest

알을 낳다 to lay eggs

곧 새끼 제비들이 알을 까고 나왔어요.



알을 까다 to hatch an egg

새끼 baby, pup

그러던 어느 날,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떨어지다 to drop, to fall

다리 leg

다치다 to get hurt

흥부는 새끼 제비를 가엾게 여기고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가엾게 여기다 to feel sorry for

정성껏 with one's utmost sincerity

치료해 주다 to treat, to heal

착한 흥부 덕분에 새끼 제비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건강하다 to be healthy

자라다 to grow up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흥부네 동지를 떠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준비를 했어요.



가을 fall

떠나다 to leave

따뜻하다 to be warm

남쪽 south

나라 country

준비하다 to prepare

“조심히 가거라! 내년에 꼭 다시 와야 해!”



조심히 carefully

다음 해 봄, 제비들은 잊지 않고 다시 흥부네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빠 제비가 흥부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어요.



빙빙 돌다 to turn round and round
입 mouth
물다 to hold something in one's mouth
떨어뜨리다 to drop
박씨 gourd seed

바로 박씨였어요.



흥부는 제비가 선물한 박씨를 땅에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선물 present
심다 to plant
기르다 to grow, to raise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들이 지붕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커다란 large, huge
박 gourd
(식물) 주렁주렁 열리다 to grow in clusters
지붕 roof

흥부 부부는 박을 따서 톱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따다 to pick, to nip off

톱질 sawing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러자 “펑!” 소리가 나며 박이 갈라지더니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갈라지다 to be split

쌀 rice

쏟아지다 to pour

흥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다 to be surprised, to be startled

“아니, 이게 웬 쌀이야?”



흥부 부부는 다른 박을 골라 톱질을 했어요.



“핑” 소리가 나더니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금은보화 treasure, valuables

“핑!”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왔어요.



으리으리하다 to be imposing, to be grand
기와집 tile-roofed house

“핑!” 이번에는 하인들이 나와 흥부에게 인사했어요.



하인 servant
인사하다 to greet

그렇게 흥부는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흥부의 소식을 전해 들은 놀부가 흥부를 찾아갔어요.



소식 news
전해 듣다 to hear from others
찾아가다 to go and look for

심술이 난 놀부가 자초지종을 묻자 흥부는 놀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심술이 나다 to be grumpy, to be in a filthy mood

자초지종 the whole story

묻다 to ask

말해 주다 to tell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산으로 올라가 제비를 찾아다녔어요.



마침 just in time

발견하다 to discover, to find

일부러 on purpose

부러뜨리다 to break

마침 제비를 발견한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어요.



그리고선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어요.



“내가 다리를 치료해 주었으니 내년 봄에 꼭 박씨를 물어와야 한다.”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 제비가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이듬해 following year

놀부는 신이 나서 박씨를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집 지붕에도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야.”



놀부는 부인과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평” 하고 박이 갈라지더니 박 속에서 금은보화는 커녕 무서운 도깨비들이 몰려나왔어요.



무섭다 to be scary, to be fearful

도깨비 goblin

도깨비들은 못된 놀부를 혼내 주었어요.



못되다 to be bad, to be mean

혼내 주다 to punish, to teach a lesson

도깨비들에게 집까지 빼앗긴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빼앗기다 to be taken from, to be deprived of

거지 beggar

놀부의 소식을 들은 착한 흥부는 놀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지가 된 놀부를 보고 놀란 흥부는 놀부에게 말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놀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에게 사과했어요.



잘못을 뉘우치다 to regret one's mistake

사과하다 to apologize

결국 흥부와 놀부는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사이가 좋다 to get along well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흥부와 놀부

Heungbu and Nolbu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in a village, there lived two brothers named Heung-bu and Nol-bu.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The older brother Nol-bu was ill-tempered, but the younger brother Heung-bu was very kind-hearted.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와 흥부네 가족을 모두 내쫓았어요.

After their father passed away, greedy Nol-bu took possession of all his fortune and kicked out all of Heung-bu's family.

흥부네 가족은 놀부에게 쫓겨나 산 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Heung-bu's family got kicked out by Nol-bu, and ended up building a hut at the foot of a mountain and living there.

“아버지, 배고파요.”

“Father, I’m hungry.”

굶주린 아이들이 칭얼대자 흥부는 가슴이 아팠어요.

When his starving children whined, Heung-bu was heartbroken.

어쩔 수 없이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요.

He had no choice, so he went to visit Nol-bu.

“형님, 제발 보리쌀이라도 꺾 주세요.”

“Brother, please lend me at least some barley grains.”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Hey you! How dare you come here!”

놀부는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고 형수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Nol-bu went at him with a broom and Nol-bu’s wife slapped Heung-bu on his cheek with a rice paddle.

흥부는 주걱에 붙은 밥알이라도 얻을까 하고 또 뺨을 내밀었어요.

Heung-bu reached out his cheek again with hopes of getting some grains of rice that were stuck on the rice paddle.

하지만 흥부는 결국 음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But in the end, Heung-bu had to go back without getting any food.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어요.

And some time passed and it was spring again.

제비 한 쌍이 흥부네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어요.

A couple of swallows built a nest under the eaves of Heung-bu's house and laid eggs.

곧 새끼 제비들이 알을 까고 나왔어요.

Soon, baby swallows hatched from the eggs and came out.

그러던 어느 날,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Then one day, one of the baby swallows fell from the nest and injured its leg.

흥부는 새끼 제비를 가엾게 여기고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Heung-bu felt pity for the baby swallow and treated it with care.

착한 흥부 덕분에 새끼 제비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Thanks to kindhearted Heung-bu, the baby swallows grew up healthy.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흥부네 둥지를 떠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준비를 했어요.

After some time passed and autumn came around, the swallow family prepared to leave their nest at Heung-bu's house, and go to a warm country in the south.

“조심히 가거라! 내년엔 꼭 다시 와야 해!”

“Travel safely! Make sure you come back next year!”

다음 해 봄, 제비들은 잊지 않고 다시 흥부네를 찾았어요.

The next spring, the swallows didn't forget to come back to Heung-bu's house.

그런데, 아빠 제비가 흥부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어요.

But then, the father swallow flew round and round above Heung-bu's head and dropped something it was holding in its mouth.

바로 박씨였어요.

It was none other than gourd seeds.

흥부는 제비가 선물한 박씨를 땅에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Heung-bu planted the gourd seeds that the swallow gave him and grew them with care.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들이 지붕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When it became fall, big gourds grew in clusters on the roof.

흥부 부부는 박을 따서 톱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The Heung-bu couple picked the gourds and started sawing them.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Let's saw, let's saw, let's saw it slowly.”

그러자 “퐁!” 소리가 나며 박이 갈라지더니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Then, the gourd split, making the sound “Bang!” and rice came pouring out.

흥부는 깜짝 놀랐어요.

Heung-bu was startled.

“아니, 이게 웬 쌀이야?”

“Oh, no. What is all this rice?”

흥부 부부는 다른 박을 골라 톱질을 했어요.

The Heung-bu couple picked another gourd and sawed it.

“퐁” 소리가 나더니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After the sound “Bang!”, gold and silver treasure came pouring out from the gourd.

“퐁!”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왔어요.

“Bang!” This time, a grand tile-roofed house came out.

“퐁!” 이번에는 하인들이 나와 흥부에게 인사했어요.

“Bang!” This time, some servants came out and greeted Heung-bu.

그렇게 흥부는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Like that, Heung-bu became the richest person in the village overnight.

흥부의 소식을 전해 들은 놀부가 흥부를 찾아갔어요.

Nol-bu, who heard the news about Heung-bu, went to visit him.

심술이 난 놀부가 자초지종을 묻자 흥부는 놀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When grumpy Nol-bu asked about the whole story, Heung-bu told Nol-bu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so far.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산으로 올라가 제비를 찾아다녔어요.

Nol-bu listened to Heung-bu's story and went up to the mountain to look for swallows.

마침 제비를 발견한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어요.

Just in time, Nol-bu found a swallow and broke its leg on purpose.

그리고선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어요.

And then, he cured its leg.

“내가 다리를 치료해 주었으니 내년 봄에 꼭 박씨를 물어와야 한다.”

“Since I cured your leg, make sure you bring gourd seeds next spring.”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 제비가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The following spring, the swallow really brought gourd seeds to Nol-bu.

놀부는 신이 나서 박씨를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Nol-bu got excited, and planted the gourd seeds and grew them with care.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집 지붕에도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As it became fall, the gourds grew in clusters on the roof of Nol-bu's house, as well.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야.”

“Now, I'm going to be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놀부는 부인과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Nol-bu started to saw the gourd with his wife.

“툽질하세, 툽질하세, 슬근슬근 툽질하세.”

“Let’s saw, let’s saw, let’s saw slowly.”

“펑” 하고 박이 갈라지더니 박 속에서 금은보화는 커녕 무서운 도깨비들이 몰려나왔어요.

The gourd split, making the sound “Bang!”, and instead of gold and silver treasure, scary goblins poured out from the gourd.

도깨비들은 못된 놀부를 혼내 주었어요.

The goblins punished mean Nol-bu.

도깨비들에게 집까지 빼앗긴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Nol-bu, who even had his house taken by the goblins, became a beggar overnight.

놀부의 소식을 들은 착한 흥부는 놀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Kind-hearted Heung-bu, who heard the new of Nol-bu, ran to Nol-bu’s house.

거지가 된 놀부를 보고 놀란 흥부는 놀부에게 말했어요.

Heung-bu was surprised to see that Nol-bu had become a beggar and he told him.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Brother, don’t worry. Live with us”

놀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에게 사과했어요.

Nol-bu sincerely regretted his wrongdoings, and apologized to Heung-bu.

결국 흥부와 놀부는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In the end, Heung-bu and Nol-bu lived well in peace.

GRAMMAR POINT

Verb stem + -게 되다

= “to gradually get to do”, “to end up doing”

살다 + -게 되다 => (살게 되다)
to live to end up to end up living

자다 + -게 되다 => ()
to sleep to end up to end up sleeping

먹다 + -게 되다 => ()
to eat to end up to end up eating

PAST TENSE PRACTICE

Ex) 차지하다 to take possession (Infinitive form)

☞ 차지했어요 (Past Tense)

1. 배고프다 to be hungry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2. 찾아가다 to go and look for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3. 때리다 to hit, to punch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4. 얻다 to get, to gain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가족	a. to break
배고프다	b. to treat, to cure
깨다	c. mouth
치료해 주다	d. family
입	e. to find, to discover
깜짝 놀라다	f. to be surprised, to be startled
발견하다	g. to be hungry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re were two brothers living together, and the older brother was nice and kind. (T / F)
2. Their father left all his property to his first son. (T / F)
3. The younger brother Heung-bu visited his brother's house to borrow something to eat.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swallows came back to the Heung-bu's house the following spring in order to give them a present.

2. Heung-bu was happy when he got the seeds from the swallows because he knew that he would become a rich.
3. Nol-bu went to see Heung-bu to congratulate him.
4. Nol-bu found an injured swallow and gave it treatment.

ANSWER KEY

Grammar point

자게 되다, 먹게 되다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1. 배고팠어요 | 2. 찾아갔어요 |
| 3. 때렸어요 | 4. 얻었어요 |

Vocabulary quiz

d, g, a, b, c, f, e

True or False

- | | | |
|------|------|------|
| 1. F | 2. F | 3. T |
|------|------|------|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착한 할아버지와 욕심만 가득한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착한 할아버지는 보리쌀을 빌리러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착한 할아버지가 부자 할아버지에게서 빌려 온 보리쌀 한 가마니를 열어 보니 온통 보리쌀 껍질과 모래뿐이었어요.

착한 할아버지는 그걸로 대충 끼니를 때운 뒤 빌린 보리쌀 한 가마니를 갚기 위해 다시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부자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에게 이자도 갚으라며 소리쳤어요. 가진 것이 없는 착한 할아버지는 매일 나무 한 짐씩 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나가던 나그네가 착한 할아버지 댁의 문을 두드렸어요.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착한 할아버지는 나그네에게 방을 내어 주고 보리쌀로 죽을 끓여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묵던 방에 가 보니 나그네는 없고 부채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는 파란 부채, 또 하나는 빨간 부채였어요. 마침 너무 더웠던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코가 길어졌어요. 놀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부치자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요술 부채로구나!”

할아버지는 나그네를 다시 만나면 부채를 돌려주려고 부채를 가지고 다녔어요. 착한 할아버지가 빌린 보리쌀의 이자를 갚으러 나무를 한 짐 해서 부자 할아버지네로 갔어요. 그런데 부채를 가지고 있던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 많은 부자 할아버지에게 그만 부채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네, 그 부채를 나에게 이자로 주게.”

“안 되네. 이건 내 것이 아니라서 주인을 만나면 돌려줘야 하네.”

요술 부채가 욕심이 났던 부자 할아버지는 그 부채를 자신의 집과 바꾸기로 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요술 부채를 얻은 부자 할아버지는 부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부자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로 마을 사람들의 코를 늘려 놓은 뒤 큰 돈을 받고 다시 파란 부채를 부쳐 코를 원래대로 돌려 놓았어요.

어느 날, 심심했던 부자 할아버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채로 코를 늘이면 얼마나 길어질까?”

부자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로 코를 늘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가 방망이만큼 커지더니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 위까지 올라온 코를 본 옥황상제는 화가 났어요.

“감히 하늘을 넘보다니. 저것을 기둥에 묶도록 하여라!”

그러자 부자 할아버지의 코가 아파 오기 시작했어요. 부자 할아버지는 코가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코를 다시 줄이기 위해 파란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가 줄어들수록 부자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새 화가 풀린 옥황상제는 코를 다시 풀어 주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코를 풀자 부자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한편 착한 할아버지는 부채와 바꾼 큰 집에서 부자 할아버지가 남들에게 빼앗은 쌀과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착한 할아버지와 욕심만 가득한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마을 village
가난하다 to be poor
착한 마음씨 kind heart, warm heart
욕심 greed
가득하다 to be full
부자 rich person

어느 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착한 할아버지는 보리쌀을 빌리러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흉년 year of bad harvest
보리쌀 grain of barley

빌리다 to borrow

찾아가다 to visit

하지만 착한 할아버지가 부자 할아버지에게서 빌려 온 보리쌀 한 가마니를 열어 보니 온통 보리쌀 껍질과 모래뿐이었어요.



가마니 straw bag

열어보다 to open, try opening

껍질 skin, peel

모래 sand

착한 할아버지는 그걸로 대충 끼니를 때운 뒤 빌린 보리쌀 한 가마니를 갚기 위해 다시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끼니 meal

때우다 to make do with

갚다 to pay back, to repay

그러자 부자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에게 이자도 갚으라며 소리쳤어요.



이자 interest

소리치다 to shout out, to yell out

가진 것이 없는 착한 할아버지는 매일 나무 한 짐씩 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나무를 하다 to cut wood

약속하다 to promise

한 짐 a load of luggage

그러던 어느 날 밤, 지나가던 나그네가 착한 할아버지 댁의 문을 두드렸어요.



지나가다 to pass by

나그네 wanderer, traveler

댁 residence, house

문 door

두드리다 to knock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묵어가다 to stay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누추하다 to be shabby, to be humble

들어오다 to come in

착한 할아버지는 나그네에게 방을 내어 주고 보리쌀로 죽을 끓여 주었어요.



내어주다 to give

죽 porridge

끓이다 to boil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묵던 방에 가 보니 나그네는 없고 부채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부채 fan

놓여져 있다 to lie, to be put

하나는 파란 부채, 또 하나는 빨간 부채였어요.



파란 blue

빨간 red

마침 너무 더웠던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마침 just in time

덥다 to be hot

부채를 부치다 to fan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코가 길어졌어요.



코 nose

길어지다 to get longer

놀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부치자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놀라다 to be surprised

줄어들다 to decrease, to shrink

“이게 바로 요술 부채로구나!”



할아버지는 나그네를 다시 만나면 부채를 돌려주려고 부채를 가지고 다녔어요.



만나다 to meet

돌려주다 to give back

가지고 다니다 to carry

착한 할아버지가 빌린 보리쌀의 이자를 갚으러 나무를 한 짐 해서 부자 할아버지네로 갔어요.



그런데 부채를 가지고 있던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 많은 부자 할아버지에게 그만 부채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빼앗기다 to be captivated, to be taken

“자네, 그 부채를 나에게 이자로 주게.”



“안 되네. 이건 내 것이 아니라서 주인을 만나면 돌려줘야 하네.”



요술 부채가 욕심이 났던 부자 할아버지는 그 부채를 자신의 집과 바꾸기로 했어요.



욕심이 나다 to get greedy, to desire

집 house

바꾸다 to change, to exchange

그렇게 억지로 요술 부채를 얻은 부자 할아버지는 부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억지로 by force

돈을 벌다 to earn money

부자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로 마을 사람들의 코를 늘려 놓은 뒤 큰 돈을 받고 다시 파란 부채를 부쳐 코를 원래대로 돌려 놓았어요.



마을 사람 village people

늘려 놓다 to enlarge, to lengthen

돈을 받다 to receive money

돌려 놓다 to put something back

어느 날, 심심했던 부자 할아버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궁금하다 to wonder

“이 부채로 코를 늘이면 얼마나 길어질까?”



길어지다 to become long

부자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로 코를 늘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가 방망이만큼 커지더니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방망이 bat

커지다 to become big

지붕 roof

뚫다 to dig, to pierce

올라가다 to go up

하늘 위까지 올라온 코를 본 옥황상제는 화가 났어요.



옥황상제 the Great Jade Emperor (in the sky)
화가 나다 to get angry

“감히 하늘을 넘보다니. 저것을 기둥에 묶도록 하여라!”



넘보다 to covet
기둥 pillar
묶다 to tie up

그러자 부자 할아버지의 코가 아파 오기 시작했어요.



아프다 to hurt, to be painful

부자 할아버지는 코가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코를 다시 줄이기 위해 파란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가 줄어들수록 부자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새 화가 풀린 옥황상제는 코를 다시 풀어 주라고 했어요.



화가 풀리다 anger melts away

풀어 주다 to set someone free, to release

신하들이 코를 풀자 부자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신하 vassal, retainer, subject

떨어지다 to drop, to fall

그날 이후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한편 착한 할아버지는 부채와 바꾼 큰 집에서 부자 할아버지가 남들에게 빼앗은 쌀과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빼앗다 to steal

쌀 rice

돈 money

나누어 주다 to distribute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빨간 부채 파란 부채

The red fan and the blue fan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착한 할아버지와 욕심만 가득한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poor but warm-hearted old man and a rich old man full of greed.

어느 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착한 할아버지는 보리쌀을 빌리러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One day, the kind old man, who didn't have anything to eat due to the bad harvest, went to visit the rich old man to borrow some grains of barley.

하지만 착한 할아버지가 부자 할아버지에게서 빌려 온 보리쌀 한 가마니를 열어 보니 온통 보리쌀 껍질과 모래뿐이었어요.

But when the kind old man opened the bag of barley that he had borrowed from the rich old man, there were only barley peels and sand.

착한 할아버지는 그걸로 대충 끼니를 때운 뒤 빌린 보리쌀 한 가마니를 갚기 위해 다시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The kind old man made do with that and went to the rich old man to pay back a bag of barley that he had borrowed.

그러자 부자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에게 이자도 갚으라며 소리쳤어요.

And the rich old man yelled at the kind old man, telling him to pay back interest as well.

가진 것이 없는 착한 할아버지는 매일 나무 한 짐씩 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The kind old man had nothing, so he made a promise that he would give a load of wood everyday.

그러던 어느 날 밤, 지나가던 나그네가 착한 할아버지 댁의 문을 두드렸어요.

Then one night, a traveler who was passing by knocked on the door of the kind old man.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Can I stay here just for a night?”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It’s shabby here but come on in.”

착한 할아버지는 나그네에게 방을 내어 주고 보리쌀로 죽을 끓여 주었어요.

The kind old man gave him a room and cooked him some porridge with barley.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묵던 방에 가 보니 나그네는 없고 부채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The next morning, he went to the room where the traveler was staying, but he was not there and just two fans were lying there.

하나는 파란 부채, 또 하나는 빨간 부채였어요.

One was a blue fan and the other one was a red one.

마침 너무 더웠던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The old man was very hot right at the moment, so he started to fan himself with the red fan.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코가 길어졌어요.

Then, all of a sudden, the old man's nose got longer.

놀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부치자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Surprised, the old man started fanning himself with the blue fan this time, and his nose shrank again.

“이게 바로 요술 부채로구나!”

“This is a magic fan!”

할아버지는 나그네를 다시 만나면 부채를 돌려주려고 부채를 가지고 다녔어요.

The old man was carrying the fans so that he could give them back to the traveler if he meets the traveler again.

착한 할아버지가 빌린 보리쌀의 이자를 갚으러 나무를 한 짐 해서 부자 할아버지네로 갔어요.

The kind old man cut a load of wood and went to the rich old man's house to pay back the interest for the barley.

그런데 부채를 가지고 있던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 많은 부자 할아버지에게 그만 부채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But the kind old man, who was carrying the fans, ended up having the fans taken by the greedy and rich old man.

“자네, 그 부채를 나에게 이자로 주게.”

“Hey, give me those fans as the interest.”

“안 되네. 이건 내 것이 아니라서 주인을 만나면 돌려줘야 하네.”

“No, I can't. These are not mine so I have to give them back when I meet the owner.”

요술 부채가 욕심이 났던 부자 할아버지는 그 부채를 자신의 집과 바꾸기로 했어요.

The rich old man, who really wanted to have the fans, decided to exchange his house for the fans.

그렇게 억지로 요술 부채를 얻은 부자 할아버지는 부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Like that, the rich old man got the fans by insisting, and was excited at the thought of making money using the fans.

부자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로 마을 사람들의 코를 늘려 놓은 뒤 큰 돈을 받고 다시 파란 부채를 부쳐 코를 원래대로 돌려 놓았어요.

The rich old man made villagers' noses longer with the red fan and after that, he made them return to the original size with the blue fan, after getting paid a lot of money.

어느 날, 심심했던 부자 할아버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One day, the rich old man got bored and started to wonder.

“이 부채로 코를 늘이면 얼마나 길어질까?”

“How long can this fan make my nose?”

부자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로 코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The rich old man started to make his nose longer with the red fan.

처음에는 코가 방망이만큼 커지더니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At first, his nose got as big as a bat, and then went up to the sky through the roof.

하늘 위까지 올라온 코를 본 옥황상제는 화가 났어요.

The Great Jade Emperor in the sky got angry to see the nose that came up to the sky.

“감히 하늘을 넘보다니. 저것을 기둥에 묶도록 하여라!”

“How dare you covet the sky. Tie it up to a pillar!”

그러자 부자 할아버지의 코가 아파 오기 시작했어요.

And then, the rich old man's nose started to hurt.

부자 할아버지는 코가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코를 다시 줄이기 위해 파란 부채를 부치기 시작했어요.

The rich old man started to fan himself with the blue fan to make his nose smaller again, not knowing that his nose was tied up.

그런데 코가 줄어들수록 부자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하늘로 올라갔어요.

But, as his nose got smaller, his body gradually went up to the sky.

그새 화가 풀린 옥황상제는 코를 다시 풀어 주라고 했어요.

Meanwhile, the Great Jade Emperor became less angry and ordered to release the nose.

신하들이 코를 풀자 부자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His subordinates released his nose and the old man ended up falling from the sky.

그날 이후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After that day, no one has ever seen the greedy old man again.

한편 착한 할아버지는 부채와 바꾼 큰 집에서 부자 할아버지가 남들에게 빼앗은 쌀과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Meanwhile, the kind old man lived happily ever after in the big house that he exchanged with the fans, distributing rice and money, which the rich old man had taken from others, to poor people.

GRAMMAR POINT

Verb stem + -아/어/여라

= Making an imperative sentence (To order someone to do something by saying impolite, casual Korean)

Verb stem ending in vowels 'ㅏ' or 'ㅑ' + -아라

Verb stem ending in other vowels + -어라

하다 + -여라 (하여라 -> 해라)

보다 + -아라 => (보아라 -> 봐라)
]to see See!

자다 + -아라 => (자아라 ->)
to sleep Sleep!

뛰다 + -어라 => ()
to run Run!

전화하다 + -여라 => (전화하여라 ->)
to call Call!

FUTURE TENSE PRACTICE

Ex) 지나가다 to pass by (Infinitive form)

☞ 지나갈 거예요 (Future tense)

1. 약속하다 to promise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2. 두드리다 to knock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3. 길어지다 to get longer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4. 돈을 벌다 to earn money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부자

a. to decrease

값다

b. to come in

들어오다

c. nose

코

d. to meet

줄어들다

e. rich person

만나다

f. to pay back

화가 나다

g. to get angry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kind old man had nothing to eat because he was too lazy to work.

(T / F)

2. The wanderer left three fans as a present. (T / F)

3. The rich old man wanted the fan so he could earn much more money.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blue fan makes your nose get longer.
2. The rich old man made money and distributed it to people using the fan.
3. The rich old man went up to the sky because he was wondering about the sky.
4. The Jade Emperor got angry due to the rich old man's nose having come up to the sky.

ANSWER KEY

Grammar point

자라

뛰어라

전화해라

Future tense practice

- | | |
|------------|-------------|
| 1. 약속할 거예요 | 2. 두드릴 거예요 |
| 3. 길어질 거예요 | 4. 돈을 벌 거예요 |

Vocabulary quiz

e, f, b, c, a, d, g

True or False

- | | | |
|------|------|------|
| 1. F | 2. F | 3. T |
|------|------|------|

Choose the correct sentence.

(4)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형은 결혼을 해서 예쁜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동생도 마음씨 착한 신부와 결혼을 했어요. 형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가을이 되자 형제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풍년이 들었어요.

“형님, 이 정도면 모두가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형제는 아주 행복했어요. 추수를 마치니 쌀이 12가마니가 나왔어요. 형제는 쌀을 똑같이 여섯 가마니씩 나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형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동생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형은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동생네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으니 우리보다 필요한 것이 많지 않겠소?”

“네, 맞아요. 우리는 네 식구니 쌀 네 가마니면 충분해요.”

착한 형의 부인이 두 가마니를 동생네 가져다주고 오라고 했어요.

한편, 동생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형님네는 식구가 넷이나 되니 우리보다 쌀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우린 아직 자식이 없으니 두 가마니를 더 드리고 오세요.”

두 형제는 각각 쌀 두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서로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형제는 각자 자신의 집 마당에 여전히 쌀이 여섯 가마니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네. 분명 쌀 두 가마니를 가져다 놓았는데 왜 그대로지?’

그날 밤, 형제는 다시 쌀 두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수레를 끌고 서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때, 형제는 똑같이 쌀 가마니를 옮기고 있는 서로를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형제는 쌀 가마니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우야, 고맙다.”

의좋은 형제는 그 후로도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의좋다 to be friendly, to be on good terms

형제 brother

살다 to live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형은 결혼을 해서 예쁜 두 아이를 낳았어요.



시간이 흐르다 time passes

결혼하다 to marry

형 older brother

예쁘다 to be pretty

아이 baby

낳다 to give birth to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동생도 마음씨 착한 신부와 결혼을 했어요.



동생 younger sibling

착하다 to be kind

신부 bride

형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물려주다 to inherit, to leave behind

논 rice paddy

농사를 짓다 to farm, to do farming

가을이 되자 형제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풍년이 들었어요.



가을 fall, autumn

부지런하다 diligent

풍년이 들다 to have a year of good crops

“형님, 이 정도면 모두가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걱정 worry

배불리 먹다 to eat one's fill, to take a hearty meal

형제는 아주 행복했어요.



행복하다 to be happy

추수를 마치니 쌀이 12가마니가 나왔어요.



추수 harvest
마치다 to finish
쌀 rice
가마니 straw bag

형제는 쌀을 똑같이 여섯 가마니씩 나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누다 to share
집 house
돌아가다 to come back

하지만 그날 밤, 형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잠을 이루다 to sleep
제대로 properly

동생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걱정되다 to be worried

형은 부인에게 말했어요.



부인 wife

말하다 to tell

“여보, 동생네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으니 우리보다 필요한 것이 많지 않겠소?”



필요하다 to need

“네, 맞아요. 우리는 네 식구니 쌀 네 가마니면 충분해요.”



충분하다 to be enough

착한 형의 부인이 두 가마니를 동생네 가져다주고 오라고 했어요.



가져다주다 to bring

한편, 동생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형님네는 식구가 넷이나 되니 우리보다 쌀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우린 아직 자식이 없으니 두 가마니를 더 드리고 오세요.”



자식 children

두 형제는 각각 쌀 두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서로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어요.



수레 wagon, cart

싣다 to load up

마당 yard, garden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형제는 각자 자신의 집 마당에 여전히 쌀이 여섯 가마니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still

깜짝 놀라다 to be surprised, to be startled

‘이상하네. 분명 쌀 두 가마니를 가져다 놓았는데 왜 그대로지?’



이상하다 to be weird, to be strange

그대로 as it is

그날 밤, 형제는 다시 쌀 두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옮기다 to move (location)

수레를 끌고 서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때, 형제는 똑같이 쌀 가마니를 옮기고 있는 서로를 발견했어요.



끌다 to pull, to draw

서로 each other

발견하다 to find, to discover

그제서야 형제는 쌀 가마니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줄어들다 to decrease

이유 reason

“형님, 감사합니다.”



“아우야, 고맙다.”



의좋은 형제는 그 후로도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돕다 to help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의좋은 형제

Loyal brothers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in a village, there lived two brothers who were on good terms.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형은 결혼을 해서 예쁜 두 아이를 낳았어요.

Time passed and the older brother got married and gave birth to two pretty children.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동생도 마음씨 착한 신부와 결혼을 했어요.

And more time passed, the younger brother also got married to a kind-hearted bride.

형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The brothers lived while farming together on the rice paddy that their parents had passed on to them.

가을이 되자 형제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풍년이 들었어요.

When it became fall, they had a year of good crops thanks to their hard work.

“형님, 이 정도면 모두가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Brother, with this amount, we will all be able to eat enough without worrying.”

형제는 아주 행복했어요.

The brothers were very happy.

추수를 마치니 쌀이 12가마니가 나왔어요.

The harvest was over, and they had 12 straw bags of rice.

형제는 쌀을 똑같이 여섯 가마니씩 나눠 집으로 돌아갔어요.

The brothers split them up evenly into 6 straw bags each and went back to their houses.

하지만 그날 밤, 형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But that night, the older brother couldn't sleep.

동생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Because he was worried about his younger brother.

형은 부인에게 말했어요.

The older brother said to his wife.

“여보, 동생네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으니 우리보다 필요한 것이 많지 않겠소?”

“Honey, since my younger brother got married not long ago, don't you think they need more stuff than we do?”

“네, 맞아요. 우리는 네 식구니 쌀 네 가마니면 충분해요.”

“Yes, you are right. Since we are four people, four bags of rice will be enough.”

착한 형의 부인이 두 가마니를 동생네 가져다주고 오라고 했어요.

The kind-hearted wife of the older brother told him to go and give two bags of rice to his younger brother.

한편, 동생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Meanwhile, the younger brother also couldn't sleep and told his wife.

“여보, 형님네는 식구가 넷이나 되니 우리보다 쌀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Honey, since my brother's family is four people, don't you think they need more rice than we do?”

“그래요. 우린 아직 자식이 없으니 두 가마니를 더 드리고 오세요.”

“Yes. Since we don't have children yet, go and give him two more bags of rice.”

두 형제는 각각 쌀 두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서로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어요.

The two brothers each loaded up two bags of rice on their carts and took them to each other's front yard.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형제는 각자 자신의 집 마당에 여전히 쌀이 여섯 가마니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But the next morning, the brothers were surprised to see that there were 6 bags of rice still in their front yards.

‘이상하네. 분명 쌀 두 가마니를 가져다 놓았는데 왜 그대로지?’

‘That's strange. I definitely took two bags of rice over there. Why is it still the same?’

그날 밤, 형제는 다시 쌀 두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That night, the brothers loaded up two bags of rice on their carts again and started to move them.

수레를 끌고 서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때, 형제는 똑같이 쌀 가마니를 옮기고 있는 서로를 발견했어요.

Right when they were pulling their carts heading to each other's houses, the brothers found each other moving the straw bags of rice.

그제서야 형제는 쌀 가마니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Only then did the brothers know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straw bags didn't decrease.

“형님, 감사합니다.”

“Older brother, thank you.”

“아우야, 고맙다.”

“Younger brother, thank you.

의좋은 형제는 그 후로도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The brothers, who were on good terms, lived happily ever after, helping each other.

GRAMMAR POINT

Verb stem + -(기) 때문이다

= Explaining a reason ("It's because")

걱정이 되다 + -(기) 때문이다 =>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to be worried

It's because

It's because I am worried

아프다 + -(기) 때문이다 => ()

to be sick

It's because

It's because I am sick

배고프다 + -(기) 때문이다 => ()

to be hungry

It's because

It's because I am hungry

PRESENT TENSE PRACTICE

Ex) 결혼하다 to marry (Infinitive form)

☞ 결혼해요 (Present tense)

1. 부지런하다 to be diligent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2. 돌아가다 to come back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3. 걱정되다 to be worried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4. 충분하다 to be enough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농사를 짓다	a. to do farming
마치다	b. to need
나누다	c. to find, to discover
필요하다	d. to be weird
충분하다	e. to finish
이상하다	f. to share
발견하다	g. to be enough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older brother had two children and the younger one had no children.
(T / F)
2. The two brothers were happy that they had a good harvest year. (T / F)
3. The younger brother wanted to have more rice than his brother did.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two brothers split the rice paddy up evenly.
2. The two brother got a total of 6 straw bags of rice after the harvest.
3. The two brothers were worried about each other.
4. The older brother wanted to give more rice to his younger brother, but his wife didn't agree with that.

ANSWER KEY

Grammar point

아프기 때문이다.

배고프기 때문이다.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1. 부지런해요 | 2. 돌아가요 |
| 3. 걱정돼요 | 4. 충분해요 |

Vocabulary quiz

a, e, f, b, g, d, c

True or False

- | | | |
|------|------|------|
| 1. T | 2. T | 3. F |
|------|------|------|

Choose the correct sentence.

(3)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착한 여자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콩쥐 아버지는 엄마 없이 자란 콩쥐가 안타까워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새엄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엄마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콩쥐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엄마는 팥쥐만 예뻐했어요. 콩쥐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모두 시켰어요.

“그 나무 호미로 이 자갈밭을 모두 갈아 놓도록 해. 저녁 때까지 갈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콩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갈밭을 갈기에는 너무 약한 나무 호미가 곧 부러져 버렸어요.

‘어떡하지. 호미가 부러져 버렸어... 오늘도 저녁밥을 먹지 못 할 거야... 흑흑...’

그때, 울고 있는 콩쥐 앞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착한 콩쥐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 드릴게요.”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모두 갈았어요. 며칠 뒤, 새엄마와 팥쥐는 마을 잔치에 놀러 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벼도 찢고, 베도 다 짜 놓고 잔치에 오너라.”

하지만 항아리 바닥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항아리에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우지...’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고 있을 테니 물을 채우세요.”

항아리에 물을 모두 채운 콩쥐가 벼를 찢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참새들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콩쥐 아가씨, 우리가 벼를 모두 찢어 드릴게요.”

참새들이 벼를 찢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내가 벼를 짜 줄테니 너는 이 예쁜 신발을 신고 잔치에 가거라.”

“고맙습니다, 선녀님! 고마워, 두껍아, 참새들아!”

콩쥐는 선녀님이 준 예쁜 신발을 신고 서둘러 잔치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급하게 뛰어가던 콩쥐는 그만 강물에 신발 한 짝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원님이 콩쥐의 모습을 보았어요. 원님은 콩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고는 강물에 떠 있는 콩쥐의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신발의 주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원님이 강물에 떠 있던 신발의 주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원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날 잔치에 갔던 모든 여인들

이 그 신발을 신어 보았지만, 신발이 발에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팔쥐도 신어 보았어요. 하지만 그 신발은 팔쥐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말했어요.

“제가 한번 신어 봐도 될까요?”

콩쥐가 그 신발을 신으니 발에 꼭 맞았어요. 이것을 보고 원님이 콩쥐에게 말했어요.

“그때 남자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 후, 콩쥐와 원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착한 여자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자 girl, female

아이 kid

아버지 father

살고 있다 to be living

콩쥐 아버지는 엄마 없이 자란 콩쥐가 안타까워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안타깝다 to be pitiful, to be a shame

새엄마 stepmother

맞이하다 to welcome, to have/take someone as

새엄마는 팔쥐라는 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오다 to bring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엄마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콩쥐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안타깝다 to be sad, to be regrettable, to be unfortunate
세상을 떠나다 to leave the world, to pass away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엄마는 팔쥐만 예뻐했어요.



돌아가시다 to pass away
예뻐하다 to cherish, to love

콩쥐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모두 시켰어요.



힘든 집안일 hard house chores
시키다 to order, to make someone do something

“그 나무 호미로 이 자갈밭을 모두 갈아 놓도록 해. 저녁 때까지 갈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호미 hoe
자갈 gravel
밭 field, farm
갈다 to plow
저녁밥 dinner

콩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갈밭을 갈기에는 너무 약한 나무 호미가 곧 부러져 버렸어요.



열심히 일하다 to work hard
부러지다 to break, to be broken

‘어떡하지. 호미가 부러져 버렸어... 오늘도 저녁밥을 먹지 못 할거야... 흑흑...’



그때, 울고 있는 콩쥐 앞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울다 to cry
황소 bull
마리 counter for animals
나타나다 to appear

“착한 콩쥐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 드릴게요.”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모두 갈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 in an instant (lit. in the time that one blinks)

며칠 뒤, 새엄마와 팔쥐는 마을 잔치에 놀러 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잔치 festival, party

놀러가다 to go and hang out

말하다 to tell

“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벼도 찧고, 베도 다 짜 놓고 잔치에 오너라.”



항아리 pot

가득 채우다 to fill up

벼 rice

찧다 to pound

베 hemp cloth

짜다 to weave

하지만 항아리 바닥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구멍 hole

‘항아리에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우지...’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두꺼비 toad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고 있을 테니 물을 채우세요.”



막다 to block

항아리에 물을 모두 채운 콩쥐가 벼를 찢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참새들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참새 sparrow

“콩쥐 아가씨, 우리가 벼를 모두 찢어 드릴게요.”



참새들이 벼를 찢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선녀님 fairy

“콩쥐야, 내가 벼를 짜 줄테니 너는 이 예쁜 신발을 신고 잔치에 가거라.”



신다 to wear (shoes, socks)

“고맙습니다, 선녀님! 고마워, 두껍아, 참새들아!”



콩쥐는 선녀님이 준 예쁜 신발을 신고 서둘러 잔치에 달려갔어요.



달려가다 to run

그런데 급하게 뛰어가던 콩쥐는 그만 강물에 신발 한 짝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급하게 urgently, in a hurry

뛰어가다 to run

강물 river water

빠뜨리다 to throw into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원님이 콩쥐의 모습을 보았어요.



원님 county magistrate

모습 figure, appearance

원님은 콩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는 강물에 떠 있는 콩쥐의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떠 있다 to be floating

“저 신발의 주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아내 wife

원님이 강물에 떠 있던 신발의 주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어요.



소식 news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원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어요.



수많은 a lot of

그날 잔치에 갔던 모든 여인들이 그 신발을 신어 보았지만, 신발이 발에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신어 보다 to try wearing (shoes, socks)

물론 팔쥐도 신어 보았어요.



하지만 그 신발은 팔쥐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말했어요.



수줍다 to be shy

“제가 한번 신어 봐도 될까요?”



콩쥐가 그 신발을 신으니 발에 꼭 맞았어요.



맞다 to fit

이것을 보고 원님이 콩쥐에게 말했어요.



“그때 남자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반하다 to have a crush on

결혼하다 to marry

그 후, 콩쥐와 원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콩쥐 팔쥐

Kongjwi and Patjwi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착한 여자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in a village, there was a kind-hearted girl called Kong-jwi living with her father.

콩쥐 아버지는 엄마 없이 자란 콩쥐가 안타까워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Kong-jwi's father felt pity for Kong-jwi for having grown up without a mom, so he got her a stepmother.

새엄마는 팔쥐라는 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The stepmother brought her daughter, who was called "Pat-jwi."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엄마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콩쥐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But, unfortunately, not long after the stepmother came in, Kong-jwi's father ended up passing away.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엄마는 팔쥐만 예뻐했어요.

Once the father passed away, the stepmother only favored Pat-jwi.

콩쥐에게는 힘든 집안일을 모두 시켰어요.

She made Kong-jwi do the all the hard house chores.

“그 나무 호미로 이 자갈밭을 모두 갈아 놓도록 해. 저녁 때까지 갈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Plow this gravelly field with that wooden hoe. If you don’t finish it by evening, there’s no dinner for you.”

콩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갈밭을 갈기에는 너무 약한 나무 호미가 곧 부러져 버렸어요.

Kong-jwi worked hard, but the hoe, which was too weak to plow the gravelly field, broke soon.

‘어떡하지. 호미가 부러져 버렸어... 오늘도 저녁밥을 먹지 못 할거야... 흑흑...’

‘What should I do? The hoe is broken. I can’t have dinner today either. [sobbing].’

그때, 울고 있는 콩쥐 앞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And then, a bull appeared in front of crying Kong-jwi.

“착한 콩쥐 아가씨, 걱정 말아요. 제가 밭을 갈아 드릴게요.”

“Kind-hearted Kong-jwi, don’t worry. I will plow the gravelly field for you.”

황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모두 갈았어요.

The bull plowed all of the gravelly field in an instant.

며칠 뒤, 새엄마와 팽쥐는 마을 잔치에 놀러 가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A few days later, the stepmother and Pat-jwi said to Kong-jwi on their way to a party in the town.

“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벼도 찢고, 베도 다 짜 놓고 잔치에 오너라.”

“You can come to the party after you fill up the pot with water, pound the rice, and weave all the cloth.”

하지만 항아리 바닥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But, there was a big hole at the bottom of the pot.

‘항아리에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우지...’

‘How should I fill up the pot with water when it has a hole?’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Just then, a toad appeared from somewhere.

“아가씨. 제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구멍을 막고 있을 테니 물을 채우세요.”

“Young lady, I will go inside and block the hole, so you fill water into it.”

항아리에 물을 모두 채운 콩쥐가 벼를 찧기 시작했어요.

After filling up the pot with water, Kong-jwi started to pound the rice.

그러자 참새들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And then, sparrows appeared and said,

“콩쥐 아가씨, 우리가 벼를 모두 찧어 드릴게요.”

“Miss Kong-jwi, we will pound all the rice for you.”

참새들이 벼를 찧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요.

Soon after the sparrows started pounding the rice, a fairy came down from the sky and said to Kong-jwi,

“콩쥐야, 내가 베를 짜 줄테니 너는 이 예쁜 신발을 신고 잔치에 가거라.”

“Kong-jwi, I will weave the cloth for you. So you go to the party wearing these pretty shoes.”

“고맙습니다, 선녀님! 고마워, 두꺼비, 참새들아!”

“Thank you, Fairy! Thank you, toad and sparrows!”

콩쥐는 선녀님이 준 예쁜 신발을 신고 서둘러 잔치에 달려갔어요.

Kong-jwi put on the pretty shoes that the fairy gave her, and ran to the party in a hurry.

그런데 급하게 뛰어가던 콩쥐는 그만 강물에 신발 한 짝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But, Kong-jwi, who was running in a hurry, dropped one of her shoes in the river.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원님이 콩쥐의 모습을 보았어요.

And then, the county magistrate, who was passing by, saw Kong-jwi.

원님은 콩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He saw Kong-jwi and fell in love at first sight.

그러고는 강물에 떠 있는 콩쥐의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Then, he pointed at Kong-jwi's shoe floating on the river and said,

“저 신발의 주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I will take the owner of that shoe as my wife.”

원님이 강물에 떠 있던 신발의 주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어요.

The news spread that the county magistrate was looking for the owner of the shoe that was floating on the river to take her as his wife.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원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어요.

And a lot of women wanted to become the wife of the county magistrate.

그날 잔치에 갔던 모든 여인들이 그 신발을 신어 보았지만, 신발이 발에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All the women who went to the party that day tried the shoe, but there was nobody that the shoe fit.

물론 팔쥐도 신어 보았어요.

Of course Pat-jwi tried it on too.

하지만 그 신발은 팔쥐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But, the shoe didn't fit Pat-jwi's foot, either.

그때, 콩쥐가 수줍게 나와 말했어요.

At that moment, Kong-jwi came out in a shy manner and said,

“제가 한번 신어 봐도 될까요?”

“Can I try putting it on?”

콩쥐가 그 신발을 신으니 발에 꼭 맞았어요.

Kong-jwi tried the shoe and it fit her foot perfectly.

이것을 보고 원님이 콩쥐에게 말했어요.

Seeing this, the country magistrate said to Kong-jwi,

“그때 남자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When I saw you then, I fell in love with you at first sight. Will you marry me?”

그 후, 콩쥐와 원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After that, Kong-jwi and the country magistrate got married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GRAMMAR POINT

Verb stem + -(으)면

= Expressing conditional sentence (“If” / “In case”)

Verb stems ending with a vowel + -면

Verb stems ending with “ㄹ” + -면

Verb stems ending with consonants other than “ㄹ” + -으면

못 하다	+	-(으)면	=>	(못 하면)
cannot do		If			If one cannot do	

일어나다	+	-(으)면	=>	()
to wake up		If			If one wake up	

길다	+	-(으)면	=>	()
to be long		If			If it is long	

짧다	+	-(으)면	=>	()
to be short		If			If it is short	

PAST TENSE PRACTICE

Ex) 살고 있다 to be living (Infinitive form)

☞ 살고 있었어요 (Past tense)

1. 시키다 to order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2. 부러지다 to be broken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3. 막다 to block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4. 입다 to wear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저녁밥

a. to have a crush on

걱정 말아요

b. hole

구멍

c. to wear (clothes)

달려가다

d. to fit

입다

e. Don't worry

맞다

f. dinner

반하다

g. to run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Kong-jwi's father married another woman because he felt pity for his daughter having grown up without her mom. (T / F)
2. Kong-jwi's step mother had Kong-jwi do all the hard housework. (T / F)
3. Kong-jwi could go to the festival thanks to the help of some animals and the Fairy.(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bull helped Kong-jwi by blocking the hole in the pot.
2. The sparrows gave Kong-jwi new clothes to wear to go to the party.
3. Kong-jwi lost her shoe in the river by accident while she was running to the party.
4. The country magistrate fell in love with Kong-jwi a long time ago.

ANSWER KEY

Grammar point

일어나면, 길면, 짧으면

Past tense practice

1. 시켰어요 2. 부러졌어요 3. 막았어요 4. 입었어요

Vocabulary quiz

f, e, b, g, c, d, a

True or False

1. T 2. T 3. T

Choose the correct sentence.

(3)

호랑이와 곶감

흰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 없나?”

그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애! 응애!”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집으로 다가갔어요.

“아가, 울지 마. 계속 울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갈 거야!”

그래도 아기는 더 크게 “으앙!” 하고 울었어요.

“아가, 똑!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 있어. 똑 안 그치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저 녀석은 나를 안 무서워하네’

아기가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 여기 곳감이다, 곳감.”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툇 그쳤어요. 곳감이라는 말에 아기가 울음을 툇 그치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곳감이라는 놈이 누구길래 울음을 툇 그치지?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구나.”

그런데 그때 문이 '삐걱' 하고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외양간 안으로 도망갔어요. 얼마 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저게 곳감인가 보다.’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호랑이가 곳감이라 생각한 그림자는 사실 소를 훔치러 외양간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소 옆에 몸을 바짝 엮드려 숨겼어요.

천천히 다가온 소도둑이 호랑이의 머리를 더듬었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덩달아 깜짝 놀란 소도둑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곳감이란 괴물이 등에 탄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 힘껏 매달렸어요.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자신이 타고 있는 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도둑은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커다란 나무의 나뭇가지에 휙 뛰어 매달렸어요.

‘휴우. 하마터면 호랑이의 밥이 될 뻔했네.’

소도둑은 생각했어요.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곳감을 피해 더 빨리 뛰어 달아났어요.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휴우. 하마터면 곳감한테 잡아 먹힐 뻔했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흰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눈 snow

겨울 winter

배고프다 to be hungry

호랑이 tiger

마리 counter for animal

어슬렁어슬렁 mimetic word for going around slowly like a tiger

마을 village

내려오다 to come down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 없나?”



그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 baby

울음 crying

소리 sound

들려 오다 to hear

“응애! 응애!”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집으로 다가갔어요.



다가가다 to approach

“아가, 울지 마. 계속 울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갈 거야!”



계속 continuously, consecutively

울다 to cry

그래도 아기는 더 크게 “으앙!” 하고 울었어요.



크다 to be big

“아가, 뚝!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 있어. 뚝 안 그치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그치다 to stop

잡아가다 to take

무섭다 to be scared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알다 to know

생각하다 to think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저 녀석은 나를 안 무서워하네’



녀석 fellow

아기가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엄마 mom

“아가. 여기 꽃감이다, 꽃감.”



꽃감 dried persimmon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툇 그쳤어요.



곶감이라는 말에 아기가 울음을 툇 그치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다 to be surprised, to be startled

“곶감이라는 놈이 누구길래 울음을 툇 그치지?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구나.”



그런데 그때 문이 '빠걱' 하고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외양간 안으로 도망갔어요.



열리다 to be opened

외양간 barn, cowshed

도망가다 to run away

얼마 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시커멓다 to be dark, to be deep-black

그림자 shadow

살금살금 quietly, secretly

들어오다 to come in

‘저게 꽃감인가 보다.’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호랑이가 꽃감이라 생각한 그림자는 사실 소를 훔치러 외양간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소 cow

훔치다 to steal

도둑 thief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소 옆에 몸을 바짝 엎드려 숨겼어요.



소 cow

훔치다 to steal

도둑 thief

떨다 to tremble, to shiver

몸 body

엎드리다 to lie on one's face, to lie face down

숨기다 to hide

천천히 다가온 소도둑이 호랑이의 머리를 더듬었어요.



천천히 slowly

더듬다 to fumble around

호랑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다 to stand up suddenly

덩달아 깜짝 놀란 소도둑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덩달아 along with, following suit

올라타다 to get on

호랑이는 꾀감이란 괴물이 등에 탄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괴물 monster

있는 힘을 다하다 to do everything in one's power

뛰다 to run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 힘껏 매달렸어요.



매달리다 to hang, to cling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자신이 타고 있는 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달빛 moonlight

깨닫다 to realize, to find

소도둑은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꼭 붙잡고 있다가 커다란 나무의 나뭇가지에
휩 뛰어 매달렸어요.



붙잡다 to hold, to grab

나뭇가지 branch

‘휴우. 하마터면 호랑이의 밥이 될 뻔했네.’ 소도둑은 생각했어요.



밥 meal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꾀감을 피해 더 빨리 뛰어 달아났어요.



떨어지다 to drop, to fall

피하다 to escape,

달아나다 to run away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휴우. 하마터면 꾀감한테 잡아 먹힐 뻔했네.’



잡아 먹히다 to be eaten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호랑이와 곶감

The tiger and a dried persimmon

흰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On a snowy winter day, a hungry tiger slowly came down to the village.

“아, 배고파. 어디 뭐 먹을 것 없나?”

“Ah, I’m hungry, Is there anything to eat?”

그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And then, from somewhere, the sound of a baby crying was heard.

“응애! 응애!”

(Baby’s cry)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집으로 다가갔어요.

The tiger approached the house where the sound was coming from.

“아가, 울지 마. 계속 울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갈 거야!”

“Baby, don’t cry. If you keep crying, a goblin will come and get you!”

그래도 아기는 더 크게 “으앙!” 하고 울었어요.

Even then, the baby cried louder.

“아가, 똑! 지금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 있어. 똑 안 그치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Baby, stop crying! There is a scary tiger outside. If you don’t stop crying, the tiger will come and take you.”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How did she know I’m here?’ The tiger thought.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But the baby still didn’t stop crying.

‘저 녀석은 나를 안 무서워하네’

‘That kid is not scared of me.’

아기가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엄마가 아기에게 말했어요.

Since the baby still didn’t stop crying, mom said to the baby.

“아가. 여기 곶감이다, 곶감.”

“Baby. Here is a dried persimmon.”

그 말에 아기는 울음을 똑 그쳤어요.

Hearing that, the baby stopped crying right away.

곶감이라는 말에 아기가 울음을 똑 그치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The tiger was surprised that the baby stopped crying at hearing the words “dried persimmon.”

“꽃감이라는 놈이 누구길래 울음을 뚝 그치지?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구나.”

“Who is this dried persimmon guy to make the baby stop crying? He must be scarier than me.”

그런데 그때 문이 '삐걱' 하고 열리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외양간 안으로 도망갔어요.

But then, as the door opened and made a creaking sound, the tiger was surprised and ran away into the barn.

얼마 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A while later, a dark shadow came into the barn quietly.

‘저게 꽃감인가 보다.’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That must be a dried persimmon.’ The tiger thought.

호랑이가 꽃감이라 생각한 그림자는 사실 소를 훔치러 외양간으로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The shadow that the tiger thought was a dried persimmon was actually a cow thief who came into the barn to steal a cow.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소 옆에 몸을 바짝 엮드려 숨겼어요.

The tiger, who didn't know that, hid itself by lying flat on its face next to a cow, trembling with fear.

천천히 다가온 소도둑이 호랑이의 머리를 더듬었어요.

The cow thief approached slowly, and fumbled around the tiger's head.

호랑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The tiger was startled and stood up with a jump.

덩달아 깜짝 놀란 소도둑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The cow thief was also surprised, and hopped onto the tiger's back.

호랑이는 꾀감이란 괴물이 등에 탄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The tiger thought that the monster called a dried persimmon was on its back, so he ran away as fast as he could.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 힘껏 매달렸어요.

The cow thief hung tight onto the tiger's back.

환한 달빛 아래로 나오자 소도둑은 자신이 타고 있는 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As they came outside under the bright moonlight, the cow thief realized that what he was riding was not a cow but a tiger.

소도둑은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다가 커다란 나무의 나뭇가지에 휙 뛰어 매달렸어요.

The cow thief was holding tightly onto the tiger's back while trembling with fear, and jumped to hang onto a branch of a big tree.

‘휴우. 하마터면 호랑이의 밥이 될 뻔했네.’ 소도둑은 생각했어요.

‘Sigh. I almost became food for the tiger.’ The cow thief thought.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꾀감을 피해 더 빨리 뛰어 달아났어요.

When the cow thief got off its back, the tiger ran away faster to escape from the dried persimmon.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The tiger thought,

‘휴우. 하마터면 곳감한테 잡아 먹힐 뻔했네.’

‘Sigh, I almost got eaten by the dried persimmon.’

GRAMMAR POINT

Verb stem + -지 마세요

= Expressing to stop someone from doing something (Don't V)

울다 + -지 마세요 => (울지 마세요)
to cry Don't Don't cry

하다 + -지 마세요 => ()
to do Don't Don't do

사진 찍다 + -지 마세요 => ()
to take a picture Don't Don't take a picture

FUTURE TENSE PRACTICE

Ex) 다가가다 to approach (Infinitive form)

☞ 다가갈 거예요 (Future tense)

1. 생각하다 to think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2. 도망가다 to run away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3. 들어오다 to come in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4. 떨어지다 to drop, to fall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눈	a. to realize
아기	b. baby
크다	c. to hide
그림자	d. slowly
숨기다	e. to be big
천천히	f. snow
깨달다	g. shadow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tiger went down to the village because he was hungry. (T / F)
2. The mom knew that the tiger was in front of the house. (T / F)

3. The tiger ran away to the barn because he thought the dried persimmon was coming out.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baby stopped crying because she was scared of a dried persimmon.
2. The tiger thought that the dark shadow was a monster named dried persimmon.
3. The thief was trying to catch the tiger.
4. The thief didn't realize that he was on the tiger until he heard the cry of the tiger.

ANSWER KEY

Grammar point

하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1. 생각할 거예요 | 2. 도망갈 거예요 |
| 3. 들어올 거예요 | 4. 떨어질 거예요 |

Vocabulary quiz

f, b, e, g, c, d, a

True or False

1. T 2. F 3. T

Choose the correct sentence.

(2)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이 임금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비밀은 바로 임금님의 귀였어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처럼 크고 길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항상 큰 왕관으로 귀를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임금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임금님의 이발사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내 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예. 물론입니다. 임금님.”

이발사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이발사는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병이 점점 깊어지자 이발사는 죽기 전에 임금님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발사는 성문 밖의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서 이발사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발사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임금님이 그렇게 큰 왕관을 쓰시나 봐요.”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임금님은 잔뜩 화가 났어요. 임금님은 신하에게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대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대나무 숲은 말라 버렸어요.

하지만 곧 말라 버린 대나무 숲에 새싹이 돋고 다시 전처럼 대나무가 우거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또다시 똑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대나무 숲에서 그 소리가 또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임금님은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하늘 나라에 간 임금님은 신령님을 만났어요.

“너의 큰 귀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어진 임금이 되거라.”

잠에서 깨어난 임금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음 날, 임금님은 큰 왕관을 벗어 놓고 자신의 귀를 내놓았어요. 그 후로 임금님은 누구보다 백성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어진 임금이 되었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 king

이 임금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비밀 secret

비밀은 바로 임금님의 귀였어요.



귀 ear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처럼 크고 길었어요.



당나귀 donkey

크다 to be big

길다 to be long

하지만 임금님이 항상 큰 왕관으로 귀를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임금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왕관 crown

가리다 to cover, to hide

모르다 to not know

하지만 딱 한 사람, 임금님의 이발사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발사 barber

알고 있다 to know

“내 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예. 물론입니다. 임금님.”



이발사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참다 to refrain from, to forbear

이발사는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답답해하다 to feel uncomfortable, to feel heavy
병이 들다 to get sick, to get a disease

병이 점점 깊어지자 이발사는 죽기 전에 임금님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어요.



깊어지다 to become deeper
죽다 to die
말하고 싶다 to want to tell

이발사는 성문 밖의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성문 castle gate
대나무 bamboo
숲 forest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서 이발사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치다 to shout out, to yell out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속이 후련하다 to feel much better/relieved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발사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 strange thing

일어나다 to happen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불다 wind blows

들리다 to be heard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임금님이 그렇게 큰 왕관을 쓰시나 봐요.”



쓰다 to wear (crown, hat, etc)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백성들 subjects, the people

소문 rumor

빠르다 to be fast, to be quick

퍼지다 to spread

임금님은 잔뜩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다 to get angry

잔뜩 very, to the gills, up a storm

임금님은 신하에게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대나무 bamboo

베어 버리다 to cut

신하 liege, vassal, retainer

명령하다 to order, to command

대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대나무 숲은 말라 버렸어요.



말라 버리다 to run dry

하지만 곧 말라 버린 대나무 숲에 새싹이 돋고 다시 전처럼 대나무가 우거지게 되었어요.



새싹 sprout

새싹이 돋다 to sprout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또다시 똑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대나무 숲에서 그 소리가 또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임금님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다 to dream

꿈에서 하늘 나라에 간 임금님은 신령님을 만났어요.



신령님 god

“너의 큰 귀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어진 임금이 되거라.”



귀 기울이다 to listen attentively/carefully

어진 임금 benevolent/gracious king

되다 to become

잠에서 깨어난 임금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잠 sleeping

깨어나다 to wake up

깨달음 enlightenment

얻다 to get, to gain

다음 날, 임금은 큰 왕관을 벗어 놓고 자신의 귀를 내놓았어요.



벗어 놓다 to take off, to undress

내 놓다 to take out, to put out

그 후로 임금은 누구보다 백성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어진 임금이 되었습니다.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King's ears are donkey ears.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king in a country.

이 임금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The king had a secret.

비밀은 바로 임금님의 귀였어요.

The secret was none other than the king's ears.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처럼 크고 길었어요.

The king's ears were big and long like donkey ears.

하지만 임금님이 항상 큰 왕관으로 귀를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임금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But, since the king always covered his ears with a big crown, no one knew the king's secret.

하지만 딱 한 사람, 임금님의 이발사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But just one person, the king's barber, knew the secret.

“내 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Do not say a word about my ears to anyone.”

“예. 물론입니다. 임금님.”

“Yes, of course. Your highness.”

이발사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The barber wanted to tell people that the king's ears looked like donkey's ears, but he held back the urge to do so.

이발사는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The barber felt frustrated because he couldn't tell the secret to anyone, and ended up getting a disease.

병이 점점 깊어지자 이발사는 죽기 전에 임금님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어요.

As his disease became more and more serious, the barber wanted to tell the king's secret before he died.

이발사는 성문 밖의 대나무 숲으로 갔어요.

The barber went to a bamboo grove outside of the castle gate.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서 이발사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In the bamboo grove where nobody was around, the barber shouted out loud.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The king's ears are donkey's ears! The king's ears are donkey's ears!”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Once he shouted it out loud, he felt much better.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발사는 병으로 죽었어요.

But not long after that, the barber died from the disease.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Then, strange things started to happen.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Whenever wind blew in the bamboo grove, the sound “The king’s ears are donkey’s ears” would be heard.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The king’s ears are donkey’s ears? What does that mean?”

“그래서 임금님이 그렇게 큰 왕관을 쓰시나 봐요.”

“I guess that’s why the king wears that big crown.”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The rumor spread rapidly among the people.

임금님은 잔뜩 화가 났어요.

The king got very angry.

임금님은 신하에게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The king ordered his retainers to cut down all the bamboo trees.

대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대나무 숲은 말라 버렸어요.

All the bamboo trees were cut, so the bamboo grove ended up running dry.

하지만 곧 말라 버린 대나무 숲에 새싹이 돋고 다시 전처럼 대나무가 우거지게 되었어요.
But soon, in the dried bamboo grove, new sprouts shot up and it was thick with bamboo trees once again like before.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또다시 똑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But as wind started to blow, the same sound started to be heard again.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The king’s ears are donkey’s ears!”

대나무 숲에서 그 소리가 또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병이 나고 말았어요.
After hearing the news that they could hear the sound in the bamboo grove again, the king became ill.

그런데 그날 밤, 임금님은 꿈을 꾸었어요.
But then that night, the king had a dream.

꿈에서 하늘 나라에 간 임금님은 신령님을 만났어요.
In his dream, the king went to the heaven and met a god.

“너의 큰 귀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어진 임금이 되거라.”
“Be a benevolent king that listen to the people with your big ears.”

잠에서 깨어난 임금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The king woke up and found enlightenment.

다음 날, 임금님은 큰 왕관을 벗어 놓고 자신의 귀를 내놓았어요.
The next day, the king took off his big crown and put his ears out.

After that, the king became a benevolent king that listened to the people better than anyone.

이상하다 + -여지다 => (이상하여지다 =>)
to be strange to become to become strange

TalkToMeInKorean.com

1. 가리다 to cover, to hide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2. 외치다 to shout out, to yell out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3. 퍼지다 to spread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4. 꿈을 꾸다 to dream (Infinitive form)

_____ (Presen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비밀

a. rumor

당나귀

b. to become deeper

깊어지다

c. secret

바람이 불다

d. to be heard

소문

e. the wind blows

들리다

f. to wake up

깨어나다

g. donkey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king would always wear a big crown to cover his big head. (T / F)

2. The king didn't want anyone to know about his secret. (T / F)

3. The barber felt burdened by keeping the king's secret.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only person who knew about the king's secret was his retainer.
2. The barber went to the bamboo grove to shout out the king's secret because he couldn't tell anyone about it.
3. The rumor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because someone had heard the barber when he was shouting out in the bamboo grove.
4. The king ended up taking off his crown because he could not hear well due to it.

ANSWER KEY

Grammar point

많아지다

이상해지다

Present tense practice

- | | |
|--------|----------|
| 1. 가려요 | 2. 외쳐요 |
| 3. 퍼져요 | 4. 꿈을 꺾요 |

Vocabulary quiz

c, g, b, e, a, d, f

True or False

- | | | |
|------|------|------|
| 1. F | 2. T | 3. T |
|------|------|------|

Choose the correct sentence.

(2)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게으름뱅이의 부인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도 나가서 일 좀 해요. 남들처럼 일을 해야 우리도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부인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산책을 하던 게으름뱅이는 그늘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소를 보고 생각했어요.

‘저 소는 일도 안 하고 한가롭게 풀만 먹고 있네. 아, 나도 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마침 지나가던 노인이 게으름뱅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네, 소가 되고 싶나? 이 탈을 한번 써 보게. 이 탈을 쓰면 소가 될 거야.”

“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 탈을 쓰면 소가 되나요?”

게으름뱅이는 얼른 탈을 받아 썼어요.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게으름뱅이가 정말 소로 변해 버렸어요.

“이야! 내가 정말 소가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이제부터 먹고 자기만 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탈을 건네준 노인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랴! 이놈의 소야, 얼른 가자.”

노인은 소를 한 농부에게 팔아 버렸어요. 노인은 소를 농부에게 넘기며 말했어요.

“절대 이 소에게 무를 먹이지 마시오.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소네요.”

“아니예요! 나는 소가 아니예요! 나는 사람이라고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하는 소 울음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살아서 하늘이 벌을 주신 거야. 아이고 여보, 미안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쉬지도 못 하고 일을 하며 지난 세월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앞에 무 밭이 보였어요.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무를 먹고 죽는 게 낫겠어.’

죽기로 결심한 게으름뱅이는 무를 하나 뽑아 먹었어요. “퐁” 소리가 나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게으름뱅이가 다시 이전의 사람 모습으로 변했어요.

“와!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소리쳤어요.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일하다 to work

싫어하다 to hate

게으름뱅이 slob, lazybones

살고 있다 to be living

게으름뱅이의 부인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부인 wife

하루 종일 all day long

잠(을) 자다 to sleep

남편 husband

한심하다 to be pathetic

"여보, 이제 당신도 나가서 일 좀 해요. 남들처럼 일을 해야 우리도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먹고 살다 to make a living

어느 날, 부인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잔소리 nitpicking, lecture

듣다 to listen, to hear

집 house

나가다 to leave, to go out

산책을 하던 게으름뱅이는 그늘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소를 보고 생각했어요.



산책(을) 하다 to stroll

그늘 shade

풀을 뜯다 to graze

먹다 to eat

소 cow

생각하다 to think

‘저 소는 일도 안 하고 한가롭게 풀만 먹고 있네. 아, 나도 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가롭다 to be idle

좋다 to be good

그때 마침 지나가던 노인이 게으름뱅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나가다 to pass by

노인 old man

말을 걸다 to initiate a conversation, to address

“자네, 소가 되고 싶나? 이 탈을 한번 써 보게. 이 탈을 쓰면 소가 될 거야.”



탈 mask

써 보다 to try wearing

“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 탈을 쓰면 소가 되나요?”



정말 really

게으름뱅이는 얼른 탈을 받아 썼어요.



받다 to get, to receive

쓰다 to wear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게으름뱅이가 정말 소로 변해 버렸어요.



변하다 to change

“이야! 내가 정말 소가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이제부터 먹고 자기만 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신이 나다 to get excited

그런데 그때, 탈을 건네준 노인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끌고 가다 to drag

“이랴! 이놈의 소야, 얼른 가자.”



노인은 소를 한 농부에게 팔아 버렸어요.



농부 farmer

팔다 to sell

노인은 소를 농부에게 넘기며 말했어요.



넘기다 to pass

“절대 이 소에게 무를 먹이지 마시오.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무 white radish

먹이다 to feed

죽다 to die

“그것 참 이상한 소네요.”



이상하다 to be strange, to be weird

“아니예요! 나는 소가 아니예요! 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 person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어요.



소리치다 to yell out, to cry out

하지만 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하는 소 울음뿐이었어요.



입 mouth

울음 crying

그날 이후,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밭 field, farm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살아서 하늘이 벌을 주신 거야. 아이고 여보, 미안해.”



게으름을 피우다 to be idle, to get lazy

하늘 sky

벌을 주다 to punish

미안하다 to be sorry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쉬지도 못 하고 일을 하며 지난 세월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어요.



쉬다 to rest, to take a rest

세월 time and tide

뼈저리게 후회하다 to regret bitterly

반성하다 to reflect on

그런데 그때, 저 앞에 무 밭이 보였어요.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무를 먹고 죽는 게 낫겠어.’



낫다 to be better

죽기로 결심한 게으름뱅이는 무를 하나 뽑아 먹었어요.



결심하다 to decide, to make up one's mind

뽑다 to root up, to pull out

“평” 소리가 나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하다 to be amazing, to be weird

벌어지다 to happen, to occur

게으름뱅이가 다시 이전의 사람 모습으로 변했어요.



“와!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소리쳤어요.



기쁘다 to be excited, to be pleased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다 to go back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소가 된 게으름뱅이

The lazy man who became a cow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in a village, there lived a lazy person who hated working.

게으름뱅이의 부인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The lazy person's wife felt that her husband who only slept all day long was pathetic.

"여보, 이제 당신도 나가서 일 좀 해요. 남들처럼 일을 해야 우리도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Honey. Why don't you go out and get some work done now? You should work like others so we can make a living."

어느 날, 부인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가 버렸어요.

One day, the lazy person went out of the house because he didn't want to hear his wife's nagging.

산책을 하던 게으름뱅이는 그늘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소를 보고 생각했어요.

While taking a walk, the lazy person saw a cow that was grazing and thought,

‘저 소는 일도 안 하고 한가롭게 풀만 먹고 있네. 아, 나도 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That cow is not working but just idly grazing. Ah, I wish I could become a cow.’

그때 마침 지나가던 노인이 게으름뱅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An old man who was passing by just at that moment talked to him.

“자네, 소가 되고 싶나? 이 탈을 한번 써 보게. 이 탈을 쓰면 소가 될 거야.”

“Hey you, do you want to be a cow? Try this mask on. You will become a cow if you wear this mask.”

“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 탈을 쓰면 소가 되나요?”

“What? Seriously? Will I really become a cow if I put this mask on?”

게으름뱅이는 얼른 탈을 받아 썼어요.

The lazy person took the mask right away and put it on.

“퐁!”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게으름뱅이가 정말 소로 변해 버렸어요.

With a big sound that went “Boom!”, the lazy person really turned into a cow.

“이야! 내가 정말 소가 되었어!”

“Wow! I really became a cow!”

게으름뱅이는 이제부터 먹고 자기만 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The lazy person got excited at the thought of only eating and sleeping from now on.

그런데 그때, 탈을 건네준 노인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But then, the old man who gave him the mask started to drag the lazy person who had become a cow.

“이랴! 이놈의 소야, 얼른 가자.”

“Giddy up! Come on, cow. Let’s go!”

노인은 소를 한 농부에게 팔아 버렸어요.

The old man sold the cow to a farmer.

노인은 소를 농부에게 넘기며 말했어요.

The old man told the farmer as he passed him the cow.

“절대 이 소에게 무를 먹이지 마시오.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Never feed the cow white radish. This cow will die if it eats radish.”

“그것 참 이상한 소네요.”

“That’s a strange cow.”

“아니예요! 나는 소가 아니예요! 나는 사람이라고요!”

“No! I am not a cow! I am a man!”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어요.

The lazy person who had become a cow shouted.

하지만 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하는 소 울음뿐이었어요.

But, the sound that came out from the cow’s mouth was only the “moo” sound.

그날 이후,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After that day, the lazy person who became a cow worked all day long at the farmer's field.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살아서 하늘이 벌을 주신 거야. 아이고 여보, 미안해.”

“I got punished by the heaven since I lived as a lazy person. Oh honey, I'm sorry.”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쉬지도 못 하고 일을 하며 지난 세월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어요.

The lazy person who became a cow worked every day without resting and deeply regretted and reflected on his past days.

그런데 그때, 저 앞에 무 밭이 보였어요.

And then, over there, he could see a radish field.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무를 먹고 죽는 게 낫겠어.’

‘Alright, it would be better to eat a white radish and die if I have to keep living this way.’

죽기로 결심한 게으름뱅이는 무를 하나 뽑아 먹었어요.

The lazy person decided to die, so pulled out a white radish and ate it.

“펑” 소리가 나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There was a loud sound that went “Boom!” and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게으름뱅이가 다시 이전의 사람 모습으로 변했어요.

The person turned back into a man.

“와!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어!”

“Wow! I became a man again!”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소리쳤어요.

The lazy person shouted out of excitement.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The lazy person went back home and became a diligent person who works harder than anybody.

GRAMMAR POINT

Verb stem + -아/어/여서

= Expressing a reason and a result in one sentence with this verb ending
(Reason + -아/어/여서 + result)

Verb stem ending in vowels 'ㅏ' or 'ㅑ' + -아서

Verb stem ending in other vowels + -어서

하 + -어서 (=> 하여서 => 해서)

먹다 + -아/어/여서 + 배부르다 => (먹어서 배부르다.)

to eat

to be full

I ate, so I'm full.

비가 오다 + -아/어/여서 + 못 가다 => ()

It rains

can't go

It rains, so I can't go.

청소하다 + -아/어/여서 + 깨끗하다 => ()

to clean

to be clean

I cleaned up, so it's clean

PAST TENSE PRACTICE

Ex) 살고 있다 to be living (Infinitive form)

☞ 살고 있었어요 (Past tense)

1. 나가다 to leave, to go out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2. 생각하다 to think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3. 지나가다 to pass by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4. 변하다 to change (Infinitive form)

_____ (Past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게으름뱅이

a. lazybones, slob

잠(을) 자다

b. cow

산책(을) 하다

c. to eat

먹다

d. to be sorry

소

e. to sleep

변하다

f. to change

미안하다

g. to stroll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lazybones had no family. (T / F)
2. The lazybones wanted to be a cow. (T / F)
3. The lazybones didn't like being a cow because he looked ugly.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lazybones thought that cows only eat and sleep.
2. The lazybones changed into a cow as soon as he talked with the old man.
3. The farmer gave the cow a white radish.
4. The cow ate a white radish because he was hungry.

ANSWER KEY

Grammar point

비가 와서 못 가다, 청소해서 깨끗하다

Present tense practice

1. 나갔어요
2. 생각했어요
3. 지나갔어요
4. 변했어요

Vocabulary quiz

a, e, g, c, b, f, d

True or False

1. F
2. T
3.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은혜 갚은 까치

옛날에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있었어요. 선비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했어요. 선비가 걷고 있는데, 한 까치 부부가 선비 머리 위로 날아와서 시끄럽게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선비가 위를 바라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까치 둥지를 향해서 나무 위를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까치 둥지에는 까치 새끼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선비는 서둘러 활과 화살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를 명중했고, 구렁이는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까치 부부는 선비의 머리 위에서 한참을 빙빙 돌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까치 새끼들을 구해 준 선비는 또다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참을 걷자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오늘은 여기 어딘가에서 쉬어 가야겠구나.’

쉴 곳이 없나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누구세요?”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요. 밤이 어두우니 하룻밤만 쉬어 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세요.”

기와집에서 나온 한 여인이 선비를 따듯하게 맞이했어요. 여인은 선비에게 안방을 내어 주고 저녁밥도 차려 주었어요. 먼 길을 걸느라 피곤했던 선비는 저녁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선비는 어느 순간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구렁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오늘 죽인 구렁이가 내 남편이다.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선비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은 이제 갓 태어난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한 일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구렁이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산 위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낡은 절이 하나 있고, 그 절 안에 큰 종이 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 종소리가 세 번 들리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यो.”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서 누가 그 종을 친단 말ियो.”

선비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댕.”

깜짝 놀란 선비와 구렁이 부인이 산을 바라보자 종소리가 또 울렸어요.

“댕.”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종소리가 "댕" 하고 울렸어요. 세 번째 종소리가 "댕" 하고 울리자, 구렁이 부인은 선비를 풀어 주고 사라졌어요.

날이 밝고 선비는 산에 올랐어요. 어떻게 새벽에 종소리가 났는지 궁금해 산꼭대기의 절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선비는 죽은 까치 부부를 발견했어요. 까치 부부가 자신들의 새끼를 구해 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부딪혀 종을 울렸던 거예요. 선비는 까치들에 크게 감동하고 까치들을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습니다.

번역 연습

Try translating each sentence into English.

옛날에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있었어요.



선비 scholar

한양 old name of Seoul in the Joseon Dynasty

과거 시험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Joseon Dynasty)

시험을 보다 to take a test

선비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했어요.



떨어져 있다 to be away

걸어가다 to go on a foot

선비가 걷고 있는데, 한 까치 부부가 선비 머리 위로 날아와서 시끄럽게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까치 magpie

부부 married couple

머리 head

시끄럽다 to be loud

지저귀다 to sing, to twitter

선비가 위를 바라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까치 둥지를 향해서 나무 위를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구렁이 big snake

둥지 nest

기어가다 to crawl

까치 둥지에는 까치 새끼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겁에 질리다 to get scared

울다 to cry

선비는 서둘러 활과 화살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활 bow

화살 arrow

꺼내다 to pull out

활을 쏘다 to shoot an arrow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를 명중했고, 구렁이는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명중하다 to hit the mark/target

땅 ground

떨어지다 to fall, to drop

죽다 to die

까치 부부는 선비의 머리 위에서 한참을 빙빙 돌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돌다 to turn/go around

고맙다 to be thankful, to be grateful

인사(를) 하다 to say hello

고맙다고 인사하다 to express one's thanks

까치 새끼들을 구해 준 선비는 또다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구해 주다 to rescue

바쁘다 to be busy

발걸음 step, pace

옮기다 to move

한참을 걷자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한참 for a while

주위 neighborhood, circumstance

어두워지다 to become darker

‘오늘은 여기 어딘가에서 쉬어 가야겠구나.’



쉬다 to rest, to take a rest

실 곳이 없나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둘러보다 to look around

멀리 far away

불빛 light

새어 나오다 to leak out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다가가다 to approach

기와집 tile-roofed house

나타나다 to appear

“이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누구세요?”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요. 밤이 어두우니 하룻밤만 쉬어 가도 되겠소?”



나그네 traveller, wanderer

하룻밤 one night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다 to come in

기와집에서 나온 한 여인이 선비를 따듯하게 맞이했어요.



여인 woman

따듯하다 to be warm

맞이하다 to welcome

여인은 선비에게 안방을 내어 주고 저녁밥도 차려 주었어요.



안방 main room
저녁밥 dinner
차려주다 to serve

먼 길을 건너라 피곤했던 선비는 저녁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다 to be tired
잠이들다 to go to sleep, to fall asleep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선비는 어느 순간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어요.



깊다 to be deep
빠져들다 to sink into
숨이 막히다 to be stifled
느끼다 to feel
눈을 뜨다 to open one's eyes

그런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 구렁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다 to speak, to tell

“네가 오늘 죽인 구렁이가 내 남편이다.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죽이다 to kill

남편 husband

복수 revenge

선비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어요.



애원하다 to supplicate, to plead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은 이제 갓 태어난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한 일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태어나다 to be born

새끼 baby

잡아먹다 to prey on, to feed on

용서하다 to forgive

그러자 구렁이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산 위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낡은 절이 하나 있고, 그 절 안에 큰 종ی 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 종소리가 세 번 들리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이요.”



드나들다 to come in and out
낡다 to be old, to be worn
절 temple
종 bell
새벽 dawn, daybreak
닭 chicken
울다 to cry
종소리 sound of a bell
들리다 to be heard, to be heard
살 수 있다 to be able to live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서 누가 그 종을 친단 말ियो.”



산 mountain
꼭대기 top
종을 치다 to ring a bell

선비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숨을 내쉬다 to sigh
목숨 life

그런데 그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땡.”



깜짝 놀란 선비와 구령이 부인이 산을 바라보자 종소리가 또 울렸어요.



깜짝 놀라다 to be surprised, to be startled

바라보다 to look at, to stare at

종소리가 울리다 bell rings

“땡.”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렸어요.



세 번째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자, 구령이 부인은 선비를 풀어 주고 사라졌어요.



풀어 주다 to release

사라지다 to disappear

날이 밝고 선비는 산에 올랐어요.



날이 밝다 day breaks

산에 오르다 to climb a mountain

어떻게 새벽에 종소리가 났는지 궁금해 산꼭대기의 절을 찾았어요.



궁금하다 to wonder

찾다 to search, to visit

그곳에서 선비는 죽은 까치 부부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다 to find, to discover

까치 부부가 자신들의 새끼를 구해 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부딪혀 종을 울렸던 거예요.



은혜를 갚다 to repay one's kindness

몸 body

부딪히다 to bump into, to crash into

선비는 까치들에 크게 감동하고 까치들을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습니다.



감동하다 to be moved, to be touched

묻어 주다 to bury

양지바르다 (a spot) to get a lot of sunlight

영어 번역

Check your translation with ours.

은혜 갚은 까치

The magpie that repaid the kindness

옛날에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있었어요.

Once upon a time, a scholar was going to Seoul to take a civil service examination.

선비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했어요.

Since the scholar lived in a village that was far away from Seoul, he had to walk for many days to take the exam.

선비가 걷고 있는데, 한 까치 부부가 선비 머리 위로 날아와서 시끄럽게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As the scholar was walking, a magpie couple flew above his head and started to twitter loudly.

선비가 위를 바라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까치 둥지를 향해서 나무 위를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When the scholar looked up, a big snake was slowly crawling on the tree towards a magpie nest.

까치 둥지에는 까치 새끼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In the magpie nest, baby magpies were crying in fear.

선비는 서둘러 활과 화살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The scholar pulled out a bow and arrow right away and shot an arrow at the big snake.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를 명중했고, 구렁이는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The arrow hit the target, and the big snake fell on the floor and died.

까치 부부는 선비의 머리 위에서 한참을 빙빙 돌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The magpie couple expressed their thanks by flying around above the scholar's head.

까치 새끼들을 구해 준 선비는 또다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The scholar, who had saved the baby magpies, started walking again busily.

한참을 걷자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After he walked for a while, it became dark around.

‘오늘은 여기 어딘가에서 쉬어 가야겠구나.’

‘I should rest somewhere here today.’

쉴 곳이 없나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He looked around to see if there was a place to rest, and far away, light was leaking out.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As he approached the light, an old tile-roofed house appeared .

“이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Hey. Anybody here?”

“누구세요?”

“Who is it?”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요. 밤이 어두우니 하룻밤만 쉬어 가도 되겠소?”

“I am a traveler on his way to go and take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ince it's dark, can I stay here overnight?”

“네, 들어오세요.”

“Yes, come on in.”

기와집에서 나온 한 여인이 선비를 따듯하게 맞이했어요.

A woman came out of the tile-roofed house and welcomed him warmly.

여인은 선비에게 안방을 내어 주고 저녁밥도 차려 주었어요.

The woman let him stay in the main room, and served him dinner, too.

먼 길을 걸느라 피곤했던 선비는 저녁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The scholar, who was tired from walking for a long distance, fell asleep as soon as he ate dinner.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선비는 어느 순간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어요.

The scholar, who was in a deep sleep, felt at some point that he was suffocating and opened his eyes.

그런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감고 있었어요.

And a big snake was coiling around his body.

그때, 구렁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And then, the big snake started to talk.

“네가 오늘 죽인 구렁이가 내 남편이다.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The big snake you killed today was my husband. Since you killed my husband, I will take my revenge on you.”

선비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어요.

The scholar begged for his life.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은 이제 갓 태어난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한 일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I am sorry. But, your husband was about to eat baby magpies that were just born. I did that because I couldn't just sit back and let that happen, so please forgive me with generosity.”

그러자 구렁이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Then, the big snake's wife thought for a second and said,

“저 산 위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낡은 절이 하나 있고, 그 절 안에 큰 종ی 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 종소리가 세 번 들리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이요.”

“There is an old temple on top of that mountain, and there is a big bell in the temple. If I hear the bell ring three times before the chicken crows at dawn, you will be able to live.”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서 누가 그 종을 친단 말ियो.”

“Who can possibly ring the bell on top of the mountain when there is no one there?”

선비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The scholar sighed deeply and thought ‘I’m a dead person now’.

그런데 그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But then, he heard the sound of the bell.

“땡.”

(the sound of a bell ringing)

깜짝 놀란 선비와 구렁이 부인이 산을 바라보자 종소리가 또 울렸어요.

The scholar and the big snake’s wife were surprised and looked at the mountain, then they heard another sound of the bell.

“땡.”

(the sound of bell ringing)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렸어요.

And a while later, the bell rang again.

세 번째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자, 구렁이 부인은 선비를 풀어 주고 사라졌어요.

As the bell rang the third time, the big snake’s wife released the scholar and disappeared.

날이 밝고 선비는 산에 올랐어요.

The day broke and the scholar climbed the mountain.

어떻게 새벽에 종소리가 났는지 궁금해 산꼭대기의 절을 찾았어요.

He visited the temple wondering how he could hear the sound of the bell at dawn.

그곳에서 선비는 죽은 까치 부부를 발견했어요.

There, the scholar found the magpie couple dead.

까치 부부가 자신들의 새끼를 구해 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부딪혀 종을 울렸던 거예요.

The magpie couple had rang the bell by bumping their body into it in order to repay him for having saved their babies.

선비는 까치들에 크게 감동하고 까치들을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습니다.

The scholar was deeply moved, and buried the magpies in a sunny place.

GRAMMAR POINT

Verb stem + -자마자

= "As soon as"

먹다 + -자마자 => (먹자마자)
to eat As soon as As soon as (I) eat

오다 + -자마자 => ()
to come As soon as As soon as (I) come

보다 + -자마자 => ()
to see As soon as As soon as (I) see

FUTURE TENSE PRACTICE

Ex) 시험을 보다 to take a test (Infinitive form)

☞ 시험을 볼 거예요 (Future tense)

1. 걸어가다 to go on a foot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2. 인사하다 to say hello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3. 어두워지다 to become darker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4. 태어나다 to be born (Infinitive form)

_____ (Future tense)

VOCABULARY QUIZ

Match each word with its equivalent.

시끄럽다

a. to be warm

고맙다

b. to be thankful

바쁘다

c. dinner

따뜻하다

d. to be moved, to be touched

저녁밥

e. to be tired

피곤하다

f. to be busy

감동하다

g. to be loud

COMPREHENSION QUIZ

True or False?

1. The magpie couple twittered loudly above the scholar's head because their babies were in danger. (T / F)
2. The scholar knew that the woman in the house was the wife of the big snake that he had killed. (T / F)
3. The big snake's wife that was trying to kill the scholar didn't think that the bell on the top of the mountain would ring. (T / F)

Choose the correct sentence.

1. The scholar saw the magpie family on his way to his house.
2. The woman welcomed and treated the scholar nicely because she liked him.
3. The woman turned into a big snake and was trying to kill him to avenge her husband's death after he fell asleep.
4. The magpie couple wanted to repay his kindness, so they made some people hit the bell.

ANSWER KEY

Grammar point

오자마자

보자마자

Present tense practice

1. 걸어갈 거예요
2. 인사할 거예요

3. 어두워질 거예요

4. 태어날 거예요

Vocabulary quiz

g, b, f, a, c, e, d

True or False

1. T

2. F

3. T

Choose the correct sentenc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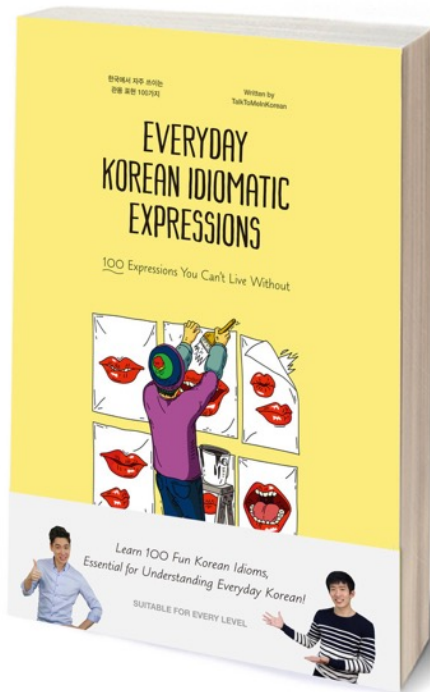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Talk To Me In Korean 팀은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를
더욱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Talk To Me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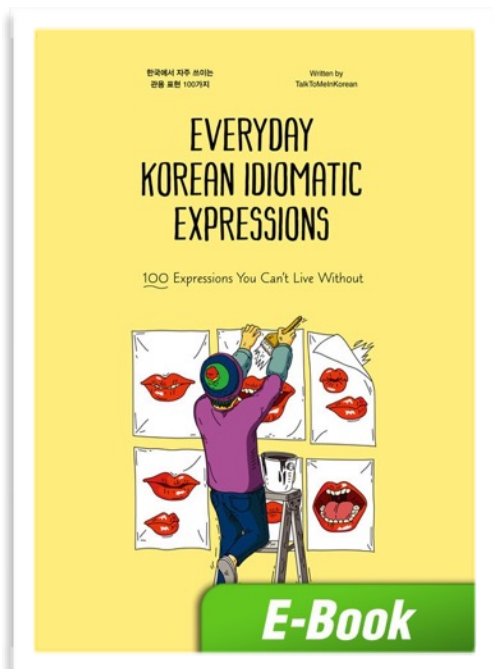
MORE BOOKS FROM TALK TO ME IN KOREAN



Everyday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book) (\$18)

Korean speakers used a lot of idioms in their daily conversations. Learn 100 most commonly used ones through this book!

Get your copy at <http://goo.gl/zcAeOE>



Everyday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e-book) (\$11.99)

Want to start studying with this book right away? You can get it in the e-book format too.

Download it at <http://goo.gl/n2LpHP>